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일상적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어 말하기 교육 방안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2009年

The logo of Hansung University is a large, stylized blue 'H' shape. To its right, the words 'HANSUNG UNIVERSITY' are written in a light blue, sans-serif font, with 'HANSUNG' on the top line and 'UNIVERSITY' on the bottom line.

漢城大學校 大學院

韓國語文 學科

韓國語教育 專攻

徐 旻 驪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金 東 煥

일상적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어 말하기 교육 방안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A study on a Method for Teaching the Korean-Speaking for
Resolving a Daily Problem Situation

-Centered on Chinese Learners-

2009年

漢城大學校 大學院

韓國語文 學科

韓國語教育 專攻

徐 旻 驪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金 東 煥

일상적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어 말하기 교육 방안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A study on a Method for Teaching the Korean-Speaking for
Resolving a Daily Problem Situation

-Centered on Chinese Learners-

위 論 文 을 文 學 碩 士 學 位 論 文 으 로 提 出 함

2009年

漢 城 大 學 校 大 學 院

韓 國 語 文 學 科

韓 國 語 教 育 專 攻

徐 旻 驪

徐旻驪의 文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9年 6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목 차

I. 서 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사 검토	4
3. 연구방법	8
II. 문제 상황의 검토	11
1. 사용자가 부딪히는 문제 상황들	11
1.1 기초 자료의 수집	11
1.2 학습자가 학습을 필요로 하는 상황 추출	18
2. 문제 상황과 관련된 선행학습 검토	29
2.1 한국어교재의 내용 및 방법	29
2.2 선행학습의 문제점	37
III. 문제 상황별 요인분석과 해결전략	41
1. 문제 상황의 요인 분석	41
1.1 길 묻기	41
1.2 음식 주문하기	43
1.3 물건 사기	44
1.4 방 구하기	45
1.5 아르바이트 하기	45
1.6 머리 꾸미기	46
2. 해결 전략	48
IV. 전략에 따른 유형별 교수 학습 방법	50
1. 교수 내용 조직	50
1.1 길 묻기	53
1.2 음식 주문하기	58

1.3 물건 사기	58
1.4 방 구하기	62
1.5 아르바이트 하기	66
1.6 머리 꾸미기	68
2. 교수 방법	72
2.1 길 묻기	72
2.2 음식 주문하기	73
2.3 물건 사기	75
2.4 방 구하기	76
2.5 아르바이트 하기	77
2.6 머리 꾸미기	78
V.결론	80
<참고문헌>	82
부록1	88
부록2	98
ABSTRACT	108
中文摘要	110

표 목 차

<표 1> 언어 사용의 상황	9
<표 2> 피면접자 인적사항	12
<표 3> 면접에서 나온 항목	12
<표 4> 설문 응답자의 성별, 연령과 급수 분포	14
<표 5> 응답자의 한국에 오기 전 한국어 학습 기간	15
<표 6> 응답자의 한국어 학습 기관	16
<표 7> 응답자 한국에 온 목적	16
<표 8>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언어 기술	17
<표 9> 선행학습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17
<표 10> 선행학습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18
<표 11> 길을 물을 때 어렵다고 생각하는 상황	18
<표 12> 음식을 주문할 때 어렵다고 생각하는 상황	20
<표 13> 물건을 살 때 어렵다고 생각하는 상황	21
<표 14> 방을 구할 때 어렵다고 생각하는 상황	24
<표 15> 아르바이트를 할 때 어렵다고 생각하는 상황	25
<표 16> 머리를 꾸밀 때 어렵다고 생각하는 상황	26
<표 17> 응답자가 선호하는 한국어 말하기 수업의 유형	27
<표 18> 응답자가 선호하는 부교재의 유형	28
<표 19> 응답자가 선호하는 학습 활동의 유형	28
<표 20> 교재에서 6가지 항목의 수록 상황	30
<표 21> “길 묻기” 교재 분석	31
<표 22> “음식 주문하기” 교재 분석	31
<표 23> “물건 사기” 교재 분석	34
<표 24> “방 구하기” 교재 분석	35
<표 25> “머리 꾸미기” 교재 분석	37
<표 26> 학습자 수행하지 못한 언어요소	45

I. 서 론

1. 문제제기

한·중 수교 이후 두 나라 사이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에서 한국어교육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금 중국 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는 영어학과, 일본어학과 다음으로 인기 있는 외국어학과¹⁾이기 때문에 한국에 온 학습자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 온 중국인 학습자들을 살펴보면, 교환학생으로 온 학습자, 복수학습 제도를 통해 온 학습자, 유학원 등의 중개기관을 통해 온 학습자들이 있다. 교환학생으로 온 학습자는 중국 대학교에 성적과 한국어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로 인정받아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한국 대학교에 와서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이다. 복수학습 제도를 통해 온 학습자는 중국대학교에서 1년이나, 2년 간 전공지식과 한국어를 공부하고 나머지 3년 또는 2년은 한국에서 학업을 마치는 경우이다. 유학원을 통해 온 학습자들은 중국에서 한국어를 미리 학습하지 않고 한국에 온 학습자들도 있고, 사설학원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후에 한국으로 온 학습자도 있다. 이를 통해 한국에 온 중국인 학습자들 중에 선행학습 경험이 있는 자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행학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온 중국인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으로 나가서 먼저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익숙해야 공부하는 데도 집중할 수 있으니 일상생활에서의 대화는 초급 학습자에게 무척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한국 사람과 대화할 때 선행학습을 했던 한국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고 또는 자기가 하는 말은 상대방이 알아들 수 없으니 당연히 오해도 생기고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1) 베이징대에서는 2009년 봄 학기부터 한국어과를 독립학과로 승격시켰고, 이것은 아시아지역 언어학과로는 일본어학과에 이어 두 번째이다. (세계일보 2009.3.16)

지속되면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고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두려워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어린아이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한국에 온 목적을 잇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공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심지어 학업을 그만두고 중국에 돌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극단적 결과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학습하는 초기에 겪게 되는 의사소통상의 어려움을 조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현재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말하기 교육의 실태를 살펴보면, 기존의 한국어 회화 교수 방법인 표현의 정확성을 중시하여 모범이 되는 대화를 모방하고 생산하거나 정확한 발화 구조를 제시하고, 이를 응용하여 발화하도록 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이처럼 규격화된 학습방식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없도록 하는 일차적인 원인이 된다.²⁾ 이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복잡한 언어 현상을 모범화시켜서 학습자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범적인 대화를 똑같이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학습자가 배웠던 것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더욱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본 논의의 실행과정에서 실시한 한국에 있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말하기는 가장 어려운 언어 기술로 뽑혔다. 적지 않은 학습자들이 일상생활 중에 특히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 있는 학습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한국어에 많이 노출되었음에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다면 주로 수업시간에만 한국어를 접할 수 있는 중국 학습자들은 더욱 많은 곤란을 겪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학습자에게 더욱더 실제적인 언어 환경을 만들어 주고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에 있는 학습자들이 처음 한국어를 학습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에 온 초기의 일상적인 상황에서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대화내용과 그것에 대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2) 최수진(2008)에서는 이러한 환경의 문제를 '통제된 학습환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랐다. 먼저, 학습자에게 의사소통 장애를 일으키는 일상적인 문제 상황 장면들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문제 상황에서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해결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한국어 말하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였다.



2. 연구사 검토

본고의 연구 주제인 일상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말하기 교육과 직접적 관련을 갖는 선행연구는 아직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고의 연구가 말하기 교육의 범위에 속한다는 점에서 말하기 교육 관련 연구와 본고에서 교수 내용부분에서의 조직한 대화문이 교재의 일부라는 점에서 교재 분석 및 교재 개발과 관련된 연구로 나누어 각각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한국어 말하기 교육 관련 논문은 과제 수행 중심의 교수방법,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 전략의 훈련 방안을 주로 다루고 있다.

먼저 한국어교육에서 말하기 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겠다. 말하기 교육 분야는 과제 중심의 말하기 지도 방안과 전략 훈련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과제 중심의 말하기 교육 연구로는 이정자(2001), 현윤희(2001), 이동은(2003), 양현민(2005), 조니나(2007) 등이 있다.³⁾ 이정자(2001)와 현윤희(2001)에서는 과제수행 중에서 상호 작용을 통한 말하기 교육을 언급하고, 이동은(2003)과 조니나(2007)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동은(2003)에서는 한국어 고급반 말하기 수업 과정에서 토론 수업의 모형을 제안하였고, 조니나(2007)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담화 표지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양현민(2005)에서는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3) 이정자(2001), “그룹활동을 통한 의사소통능력 신장 연구 - 과제수행 중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현윤희(2001), “과제 수행 중심의 말하기 지도 방안 -말이 트이는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이동은(2003), “학구적 목적의 한국어 토론 수업 방안”, <한국어교육> 1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양현민(2005), 「한국어교육에서의 과제중심의 말하기 수업 구성 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조니나(2007),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교육 연구 - 중국인 학습자의 담화 표지 사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직접 경험하고 교수한 내용들을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에서는 과제 중심의 말하기 교육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으로 학습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전략 훈련 말하기 교육 연구로는 장미숙(2005), 김미경(2007), 김지현(2008), 이암(2008) 등이 있다.⁴⁾ 그 중에 장미숙(2005), 김미경(2007), 김지현(2008)은 주로 의사소통 전략을 이용한 말하기 교육을 다루었고, 이암(2008)은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토론 전략 훈련이 말하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 훈련 말하기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 장애를 해소하는 것과 관련된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본고와 거리가 있다.

다음으로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교재 개발에 대한 원리를 제시한 연구, 교재 개발을 위해 학습자 요구를 조사하고 분석한 연구, 교재의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본고는 교재의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만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박봉자(1999), 안경화·김정화·최은규(2000), 심재기·문금현(2000), 조항록(2003), 지연(2004), 안일여(2008), 김지선(2008) 등이 있다.⁵⁾

-
- 4) 장미숙(2005), 「의사소통전략 훈련이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수행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경(2007), 「의사소통전략 훈련을 위한 한국어 말하기 교육 방안 연구-소통 장애 극복을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현(2008), 「의사소통전략을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교수법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이 암(2008), 「KGP수업에서 토론 전략 훈련이 말하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인 한국어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어학과 석사학위논문.
- 5) 박봉자(1999), “서양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한국어교육> 1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안경화·김정화·최은규(2000), “학습자 중심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방향에 대하여”, <한국어교육> 11-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심재기·문금현(200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 연구-국어 텍스트의 활용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17, 이중언어학회.
 조항록(2003),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적 논의”, <한국어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지 연(2004), 「중국내 대학교의 한국어 교재 분석과 교재 개발방안」, 상명대학교 대학원 한국학

백봉자(1999)에서는 서양어권 학습자를 위한 교재의 요건을 교육과정, 교수요목, 교수법과의 연관시켜 제시하고, 음운체계, 발음, 문법 등 교재 체계에 대한 구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안경화·김정화·최은규(2000)는 구체적인 학습자 요구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 말하기 부분에서는 학습자의 어휘와 표현의 부족이라는 응답에 대하여 주제 관련 어휘가 교재에 체계적으로 수록되고 학습 난이도가 높은 어휘들에 대한 복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학습자의 표현 능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심재기·문금현(2000)에서는 구어 텍스트를 활용하여 구어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한 한국어 교재를 편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논의를 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하여 단계별로 구어 중심 교재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항록(2003)에서는 최근 한국어 교재 개발과 관련한 연구들을 검토해 보고,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이론적 논의를 교육과정, 교수요목, 학습자 요인의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교재 유형론적 관점의 몇몇 쟁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외 현지 한국어교육 환경에 적합한 교재의 개발이 매우 더디고 기능별, 범주별 교재의 개발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지연(2004)에서는 중국 대학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두 가지 교재를 대조 분석을 하였고 교재의 항목별의 대조 연구의 바탕에서 듣기 말하기 능력 향상, 자모 익히기와 발음, 문법, 어휘 등 면에 중점을 두고 세 교재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안일여(2008)는 초급 교재 내 대화문의 실제성을 음식 주문 및 물건 사기 장면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실제적 대화문 구성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상황에서 학습자가 세부적으로 요구하는 장면이나 내용에 대해 심층면접

전공 석사학위논문.

안일여(2008), 「초급 한국어 교재 내 대화문의 실제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선(2008), 「한국어 길 안내 상황에서의 외국인 대상어와 교재 진정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을 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교재의 대화문이 학습자의 요구를 얼마나 잘 충족할 수 있을지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모어 화자의 대화를 녹음하고 정리하였다. 이 자료와 학습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실제적 대화문 작성 방안을 제시하고 그 예를 보였다.

김지선(2008)에서는 실제 한국어 길 안내 대화의 특징을 분석하여 외국인 대상어의 특징을 살피고, 한국어 교재의 길 안내 지문의 진정성을 평가하였다.

이상에서 기존 연구에서 언급한 교재 개발의 방향과 방안을 살펴보고, 교재의 실제성에 대해 검토를 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대체로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대화문이 학습자가 소통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본고의 논의와 유사하지만 중국인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상황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여 추출하고, 학습자의 교재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문제점을 분석해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연구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우선 일상적인 말하기 상황별로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여기에서는 한·중의 문화, 언어의 차이도 고려하여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부딪히는 의사소통 장애가 일어나는 원인과 어떤 상황에서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상황에 대응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한국어 말하기 교육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고에서 우선적으로 3단계로 문제 상황을 추출하였다.

첫 번째는 중국에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공부하고 한국에 온 8명 학습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하였다. 면접에서는 인적사항과 한국생활에서 어렵게 느끼는 일상적인 상황장면, 그리고 면접자들이 선호하는 수업방식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다. 면접을 통해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11가지 상황과 선호하는 수업방법을 추출하였다.

두 번째는 면접에서 추출한 11가지 상황을 바탕으로 한성대학교 언어교육원과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1차 설문조사는 기술상 문제가 발생하여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본고에서 제외를 하였다.

세 번째는 11가지 상황에서 변수가 많이 발생하고, 학습자가 가장 많이 부딪힐 수 있는 6가지 상황을 선택하여 큰 항목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상황들은 세부항목으로 만들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설문조사의 대상은 서울 소재 3개 대학 교육기관 내에 언어교육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초급 수준을 제외한 중국인 학습자이었다. 본고에서는 2차 설문조사의 결과를 주된 자료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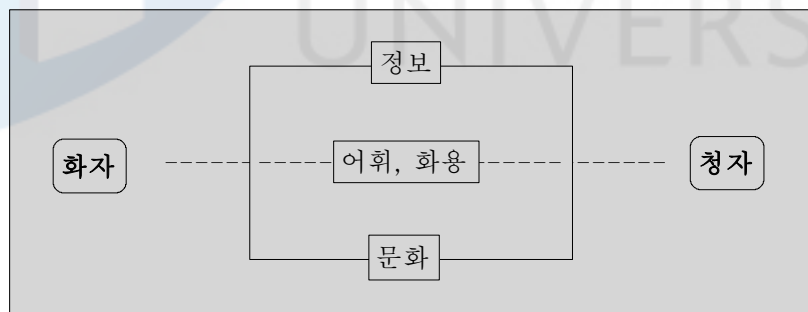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추출한,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상황들에 대해 분석할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론적 접근 모형들을 탐색하였지만 매우 적절하고 효율적인 모형을 찾기 어려워 가설적인 모형을 만들어 보았다. 야콥슨의 언어 기능이론을 비롯한 기본적인 언어이론, 화행이론들을 참조하여 설정해 본 것이다. 그 요체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말하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들을 제어하는 요소들이 무엇일지를 귀납적으로 살피는 데서 찾고자 하였

다.

그러한 탐색을 통해 얻게 된 요소들은 크게 어휘, 정보, 문화, 화용 등 4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물론 이 요소들이 모든 문제를 다 포괄할 수는 없겠으나 실제적인 활동자료들을 통해 논리적인 접근을 통해 얻은 것인 만큼 충분히 의미있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 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언어 사용의 환경을 살펴보면 화자와 청자가 있고, 화자와 청자의 대화에서 오고가는 메시지인 언어가 있고, 유의미한 대화가 되기 위한 대화의 맥락은 필수적이다. 먼저 청자와 화자 간에 오고가는 언어는 어휘와 화용으로 나눌 수 있다. 어휘는 상황별로 자주 사용하는 특정한 어휘들을 의미한다. 화용은 상황별로 사용하는 특수한 문장표현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화자와 청자가 대화에서 오고가는 맥락도 정보과 문화로 나눌 수 있다. 정보는 상황별로 관련된 특정한 정보를 의미하고, 문화는 화자와 청자가 각자 자라는 지역이나 나라 간의 문화상 차이를 반영한다. 따라서 언어사용의 환경에서 4가지 요소 중에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화자와 청자 간에 의사소통 장애가 생기게 된다. 이것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언어 사용의 상황



구체적인 연구 내용과 방법을 각 장에 따라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II장에서 문제 상황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 1절에서는 면접조사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부딪히는 문제 상황들을 추출하고 확

인하였다. 2절에서는 이러한 문제 상황들이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III장에서 문제 상황별 요인분석과 해결 전략을 제시하겠다. 1절에서는 “길 묻기, 음식 주문하기, 물건 사기, 방 구하기, 아르바이트하기” 등 6개 유형으로 나누어서 각각 어휘, 화용, 정보, 문화의 측면에서 요인분석을 하였다. 2절에서 각 유형별과 대응하는 해결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 전략에 따른 유형별 교수 학습 방법을 제시하겠다. 1절에서는 먼저 앞장에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유형별 교수 내용을 조직할 것이다. 2절에서는 교수 방법은 주로 언어게임, 역할극 그리고 상황극 등을 중심으로 조직할 것이다.

끝으로 5장은 본고의 결론으로 이제까지의 논의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의 방향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Ⅱ. 문제 상황의 검토

1. 학습자가 부딪히는 문제 상황들

본 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겪는 문제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들인지를 면접 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추출하여 이를 교재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1.1. 기초 자료의 수집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면접조사와 설문조사 두 가지 방법을 실시하였다. 먼저 중국인 학습자가 구체적으로 어려워하는 문제 상황들을 추출하기 위해 학습자와 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세부적으로 어떤 상황 장면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를 더 많은 중국인 학습자에게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습자가 모국어인 중국어를 사용하면 자신의 의견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면접 때는 중국어로 실시하였고,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도 학습자에게 질문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중국어로 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먼저 면접 결과를 살펴보겠다.

1.1.1 면접 조사

면접조사는 2009년 1월부터 2월 말까지 실시하였다. 피면접자는 한성대학교 언어교육원과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8명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한국에 유학 오기 전에 중국에서 이미 한국어를 학습한 학습자이다.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어 학습 경력이 다양하게 피면접자들을 선정하였다. 피면접자의 인적사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피면접자 인적사항

번호	성별	나이	현재급수	한국에 온 경로	중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기간
1	남	23세	4	교환학생	2년
2	남	24세	5	교환학생	2년
3	남	23세	4	교환학생	3개월
4	여	23세	6	교환학생	2년
5	여	23세	6	교환학생	2년
6	여	25세	6	유학원 통해	1년
7	여	27세	4	유학원 통해	4개월
8	여	26세	4	유학원 통해	5개월

면접 질문의 범주는 크게 면접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 어려움을 느끼는 말하기 상황에 관한 질문, 회화수업 방식에 관한 질문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 면접 결과를 분석한 결과, 8명의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상황은 크게 11가지로, 구체적인 상황을 나누면 총 25가지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습자는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어떤 표현을 잘 못하는지와 어떤 곤란을 겪게 되는지에 대한 응답을 하였다. 세부적인 상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면접에서 나온 항목

항목	세부항목
I. 길을 물을 때	1. 버스를 이용해서 길을 찾을 때
	2. 지하철을 이용해서 길을 찾을 때
	3. 걸어서 길을 찾을 때
II. 음식을 주문할 때	4. 음식점에서 주문할 때
	5. 전화로 주문할 때
III. 물건을 살 때	6. 옷을 살 때
	7. 화장품을 살 때
	8. 전자제품을 살 때
	9. 물건을 교환/ 환불할 때
IV. 집을 구할 때	10. 부동산에 가서 방을 구할 때

	11. 집주인과 계약을 할 때
	12. 방 안에 인터넷을 설치할 때
	13. 집에 보일러나 하수도 등 문제가 생겨 집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V. 아르바이트를 할 때	14.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15. 손님과 대화할 때
VI. 머리를 할 때	16. 특정 스타일로 파마를 하고 싶을 때
	17. 머리를 조금만 다듬고 싶을 때
VII. 예약할 때	18. 비행기 표를 예약할 때
	19. 배표를 예약할 때
VIII. 은행에 있을 때	20. 통장을 만들 때
	21. 환전할 때
IX. 우체국에 있을 때	22. 소포(택배)를 보낼 때
	23. 편지를 보낼 때
X. 수업에 참여할 때	24. 선생님과 대화할 때
XI.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있을 때	25. 비자문제를 해결할 때

피면접자들의 한국어수준은 모두 4급 이상이고, 한국에서 대학 수학 능력을 가진 학습자이다. 그러나 면접을 통해 일상적인 여러 상황에서 한국인과 의사소통할 때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피면접자가 중국에서 한국어를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1.2 설문조사

면접에서 발견한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11가지 항목을 분석하고, 크게 6가지 상황 장면을 추출하였다. 이 6가지 상황의 추출 기준은 먼저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부딪히는 상황들이다. 다음으로 변수가 많은 상황들이다. 예를 들어 한식당이나 레스토랑이나에 따라서 요리명칭이 다를 수 있고, 직원에게 부르는 호칭도 다를 수 있다. 음식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을 때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주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수동적인 자세로 주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주문

하는 상황은 변수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 반면에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기, 비행기 표를 예매하기, 소포를 보내기 등의 상황에서는 대체로 큰 변수 없이 관례적으로 정해진 과정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다고 느끼지만 한두 번의 경험이 있으면 수월하게 수행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변수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정해진 절차에 그대로 따르면 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음식 주문하기, 길 묻기, 물건 사기, 방 구하기, 아르바이트하기, 머리 꾸미기 등 6가지 상황을 선정하여 2차 설문지를 만들었다.

2차 설문조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일상생활 중 어느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와 어떤 말하기 수업 방식을 선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성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외국어대학교의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⁶⁾ 단, 초급 수준의 학습자들은 제외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였고, 총 60부를 나누어 주고 52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설문 문항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2부를 제외한 총 50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설문 내용은 응답자의 인적 상황, 어려워하는 상황, 수업방식 등 17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서 응답자의 복수 응답은 허용하였다.

우선 응답자의 인적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설문 응답자의 성별, 연령과 급수 분포

		한성대	성균관대	외국어대	합계(명)	백분율(%)
성별	남자	8	7	10	25	50
	여자	11	5	9	25	50
	계	19	12	19	50	100
연령	15-20세	2	4	1	7	14

6) 한 대학교에서만 조사하면 그 학교의 특징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두 대학교에서도 조사를 했다. 그리고 대부분 초급 학습자들은 한국에 온 시간이 6개월 미만이었어서 한국에 적응하지 못했으므로 단순한 언어적 문제 아닌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급 학습자는 조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21-25세	12	7	16	35	70
	26-30세	5	1	2	8	16
	계	19	12	19	50	100
급수	3급	10	12	11	33	66
	4급	9	0	4	13	26
	5급	0	0	4	4	8
	계	19	12	19	50	100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50%, 여자가 50%로 남녀의 비율이 같고, 연령 분포는 21~25세가 70%를 차지하여 대체로 20대 초반이 많았다. 급수는 3급 학습자가 66%로 가장 많았다.

다음 <표 5>는 응답자가 한국에 오기 전 한국어를 학습한 기간이다. 한국어를 학습하지 않고 온 학습자는 46%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54%의 학습자는 어느 정도 한국어를 미리 학습하고 한국에 유학을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 6개월 미만 정도로 한국어를 학습한 학습자가 3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5> 응답자의 한국에 오기 전 한국어 학습 기간

		한성대	성균관대	외국어대	합계(명)	백분율(%)
공부 했다	6개월 미만	5	3	9	17	34
	6개월-1년	1	2	2	5	10
	1년 이상-2년	4	0	1	5	10
공부하지 않았다		9	7	7	23	46
계		19	12	19	50	100

한국에 오기 전에 미리 한국어를 학습한 응답자들이 한국어를 어느 기관에서 공부하였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표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설 학원이 35.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학 어학원이 22.6%, 학부 전공이 12.9%를 차지하였다.

<표 6> 응답자의 한국어 학습 기관

	한성대	성균관대	외국어대	합계(명)	백분율(%)
1. 혼자서	1	1	0	2	6.5
2. 한국친구에게	0	1	1	2	6.5
3.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0	1	1	2	6.5
4. 학부 전공	2	1	1	4	12.9
5. 사설 학원	4	2	5	11	35.5
6. 대학 어학원	3	1	3	7	22.6
7. 기타	1	0	2	3	9.7
계	11	7	13	31	100

응답자들이 한국에 온 목적은 다음 <표 7>과 같이 나타난다. 취업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는 40%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다음으로는 학업성취 및 진학을 목적으로 한국에 온 학습자가 33.3%를 차지하였다.

<표 7> 응답자 한국에 온 목적

	한성대	성균관대	외국어대	합계(명)	백분율(%)
1. 취업	9	4	11	24	40
2. 한국문화 이해	2	1	2	5	8.3
3. 학업성취 및 진학	7	8	5	20	33.3
4. 한국인과 의사소통	4	1	1	6	10
5. 기타	1	0	4	5	8.3
계	23	14	23	60 ⁷⁾	100

일상생활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언어 기술을 순서대로 답하는 항목에 가중치⁸⁾를 적용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7) “합계”항목에 총 응답자 수의 초과하는 경우가 복수 응답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8) 가중치 = (1위 응답자) × n + (2위 응답자) × (n-1) + + (n위 응답자) × 1
(n= 항목의 개수)

<표 8>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언어 기술⁹⁾

순 위	기술	1위응답자	2위응답자	3위응답자	4위응답자	조정	백분율 10)
		(명)	(명)	(명)	(명)	가중치	(%)
1	말하기	22	16	9	3	157	31.4
2	쓰기	19	7	14	11	136	27.2
3	듣기	3	16	15	15	105	21
4	읽기	6	11	12	21	102	20.4
계		50	50	50	50	500	100

응답자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말하기”이고, “쓰기”는 두 번째 순위로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에 오기 전 미리 중국에서 학습한 한국어는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응답은 <표 9>와 같다. “도움이 조금 되었다”가 40.7%,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았다”가 33.3%, “도움이 많이 되었다”가 22.2%를 차지하였다.

<표 9> 선행학습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었는가 여부

	한성대	성균관대	외국어대	합계(명)	백분율(%)
1. 도움이 많이 되었다	3	1	2	6	22.2
2. 도움이 조금 되었다	4	1	6	11	40.7
3.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았다	3	3	3	9	33.3
4.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다	0	0	1	1	3.7
계	10	5	12	27	100

다음은 한국에 오기 전에 미리 학습한 한국어가 도움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항목이다.

9) 여기서 1위 응답자는 해당 항목을 1위로 선택한 응답자의 수를 말한다. 이러한 방식을 미루어 4위 응답자는 해당 항목을 4위로 선택한 응답자의 수를 말한다. 이 항목은 세 학교가 따로 계산하지 않고 합쳐서 계산한다.

10) 백분율 = (해당 항목의 가중치)/(가중치 계)

<표 10> 선행학습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한성대	성균관대	외국어대	합계(명)	백분율(%)
1. 문어체가 많다	0	0	3	3	14.3
2. 일상회화가 단순하다	2	2	7	11	52.4
3. 기타	3	3	1	7	33.3
계	5	5	11	21	100

<표 10>에서와 같이 교재 안에서 다루고 있는 일상 회화의 장면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52.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문어체가 많다고 응답한 학습자는 14.3% 이었고, 나머지 33.3% 응답자는 기타를 선택하였다.

1.2 학습자가 학습을 필요로 하는 상황 추출

앞서 논하였듯이 연구자가 피면접자가 응답한 11가지 상황 중에서 많은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가지 상황을 추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길을 물을 때에는 “버스/버스정류장에서”, “지하철/지하철역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 등 세 가지 상황을 나누었다. “버스/버스정류장에서”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응답자가 41.1%, “지하철/지하철역에서”는 47.2%이었다. 그리고 “길을 잃어버릴 때”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학습자가 30%이었고, 이런 경험이 없는 학습자가 24%를 차지하였다.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길을 물을 때 어렵다고 생각하는 상황

	세부항목	합계(명)	백분율(%)
	어느 방향에서 버스를 타야 하는지 물어볼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른다.	6	10.7

버스/ 버스정류장에서	몇 번 버스를 타야하는지 물어볼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른다.	8	14.3
	어느 정류장에서 내려야 할지 물어볼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른다.	6	10.7
	목적지까지 몇 정거장 남았는지 물어볼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른다.	7	12.5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쳤을 때, 다른 사람에게 해결 방법을 한국어로 물어보는 것이 어렵다.	6	10.7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23	41.1
	계	56	100
지하철/지하철역에서	어느 방향의 열차를 타야 되냐고 물어볼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른다.	3	5.7
	몇 번 출구로 나가야 되냐고 물어볼 때,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3	5.7
	같은 방향으로 가는 열차라도 각 열차의 종착역은 다를 수 있는데, 이 열차의 종착역은 어디인지 또 이 열차를 타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른다.	13	24.5
	사람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내려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른다.	9	17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25	47.2
	계	53	100
길을 잃어버렸을 때	길을 잃어버린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4	8
	한국 사람들이 길을 설명해줄 때 사용하는 “곧장, 곧바로, 쪽” 등의 어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19	38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15	30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	12	24
	계	50	100

<표 11>에서 보듯이 길 묻기 상황에서 길을 잃어 버렸을 때 응답자가 가장 어렵다고 대답한 것은 한국 사람들이 길을 설명해줄 때 사용하는 “곧장, 곧바로, 쪽” 등의 어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지하철을 탈 때 같은 방향에 가는 지하철의 종착역이 다른 경우에도 어려움을 느낀다.

음식을 주문할 때는 “식당에서 요리를 주문할 때”, “전화로 음식을 주문할 때” 등 두 가지 상황을 나누었다. “식당에서 요리를 주문할 때”에서는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습자는 29.4%이었고, 나머지 71.6% 응답자는 어느 상황이든 어렵다고 응답을 하였다. “전화로 음식을 주문할 때”라는 항목에서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응답자가 19.6%를 차지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2> 음식을 주문할 때 어렵다고 생각하는 상황

	세부항목	합계(명)	백분율(%)
식당에서 요리를 주문할 때	요리 재료가 무엇인지 물어볼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15	29.4
	요리의 양(몇 인분인지)을 물어볼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6	11.8
	요리에 대해 다른 요구가 있어서(고추장을 조금 덜 넣어주세요 등) 물어볼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6	11.8
	반찬을 리필해달라고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0	0
	식당 직원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를지 잘 모른다. ('아줌마'라고 부르면 된다고 배웠는데 왜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불렀을 때, 직원이 불쾌해하는지 모른다.)	9	17.6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15	29.4
	계	51	100
전화로 음식을 주문할 때	내가 있는 정확한 위치를 설명할 수 없다.	9	17.6
	상대방이 내가 배우지 않은 말을 사용할 때, 당황해서 대답할 수 없다.	32	62.7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10	19.6
	계	51	100

<표 12>에서 본 바와 같이 전화로 주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학습자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하는 말을 학습하지 못하여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요리 재료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어렵다는 응답하였다.

물건 사기는 물건을 살 때와 물건을 산 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를

하였다. 물건을 살 때는 크게 “옷가게에서 옷을 살 때”, “화장품을 구매할 때”, “전자제품을 살 때”, “핸드폰을 살 때” 등으로 네 가지 상황을 나누었다. <표 1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옷가게에서 옷을 살 때”에서는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습자가 26.3%, “화장품을 구매할 때”에서는 어려움이 느끼지 않는 응답자와 화장품을 사본 적이 없는 학습자를 합치면 18.3%이었고, “전자제품을 살 때”에서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응답자와 전자제품을 사본 적이 없는 학습자를 합치면 21.3%이었고, “핸드폰을 살 때”에서는 어려움이 느끼지 않는 응답자와 핸드폰을 사본 적이 없는 학습자를 합치면 14.9%이었다.

물건을 산 후 교환하거나 환불하는 상황은 교환이나 환불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해 먼저 질문하고, 다음으로 “교환하고 싶을 때”, “환불하고 싶을 때” 등의 두 가지 상황을 나누었다. 교환이나 환불에 대해 경험이 없는 학습자가 60%를 차지하였고, “교환하고 싶을 때”에서는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습자는 36%로 나타났고, “환불하고 싶을 때”에서는 어려움 느끼지 않는 응답자가 12%를 차지하였다.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물건을 살 때 어렵다고 생각하는 상황

		세부 항목	합계(명)	백분율(%)
	옷가게에서 옷을 살 때	직원에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나 색깔, 옷감 등을 얘기할 때,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15	26.3
		직원에게 다른 사이즈의 옷을 달라고 할 때,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9	15.8
		직원이 나에게 추천해 주는 옷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18	31.6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15	26.3
		계	57	100
	화장품	내가 원하는 화장품의 명칭을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모른다.	12	16.9
		내가 어떤 기능의 화장품을 원하는 지 직원에게 설명할 수 없다.	23	32.4

물 건 살 때	을 살 때	친척이나 친구에게 줄 선물을 고를 때, 괜찮은 제품을 추천해달라고 이야기하 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23	32.4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5	7
		화장품을 사본 적이 없다.	8	11.3
		계	71	100
	전자제 품을 살 때	전자제품의 성능에 대해 물어보고 싶지 만, 전문용어(화소나 메모리카드 등)를 모른다.	21	40.4
		전자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얼마 동안 인지, 그리고 제품이 고장 났을 때 어디 로 A/S 받으러 가야하는지 물어보고 싶 은데 어떻게 말해야하는지 모른다.	16	30.8
		제품의 가격을 싸게 깎아 달라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하는지 모른다.	4	7.8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7	13.5
		전자제품을 사본 적이 없다.	4	7.8
		계	52	100
	핸드폰 을 살 때	핸드폰의 성능에 대해 물어보고 싶지만, 영상통화나 DMB방송, 화소 등 단어를 몰라서 물어볼 수 없다.	10	18.5
		일시정지나 요금제 변경 등의 서비스를 받고 싶을 때 직원에게 설명할 수 없다.	36	66.7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7	13
		핸드폰을 사본 적이 없다.	1	1.9
		계	54	100
물 건 산 후	교환/환 불한 적 있습니 까?	예, 있습니다.	20	40
		아니오, 없습니다.	30	60
		계	50	100
	교환하 고 싶 을 때	물건이 커(작아)서 교환하고 싶을 때 어 떻게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1	4
		이미 산 물건에 대해 마음이 변해서 다 른 것으로 교환하고 싶지만 어떻게 말 할지 모르겠다.	3	12
		산 물건이 문제가 있어서 교환하고 싶 을 때 어떻게 말해야하는지 모르겠다.	12	48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9	36
		계	25	100

	환불하고 싶을 때	이미 산 물건에 대해 마음이 변해서 환불하고 싶지만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다.	4	16
		내가 산 음식의 유통기간이 지나서 환불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다.	2	8
		내가 산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환불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해야 된지 모르겠다.	4	16
		내가 환불하고 싶은 요구를 거절을 당할 때, 어떻게 말하면 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12	48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3	12
		계	25	100

<표 13>에서 보듯이 물건을 살 때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핸드폰을 살 때, 요금제에 대한 질문과 서비스 받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낀다고 대답하였다. 다음으로 어렵다고 느낀 것은 전자제품을 살 때, 전자제품의 성능이나 전문용어에 대해 질문해야 하는 경우였다. 화장품을 살 때, 화장품의 기능과 직원에게 추천해 달라고 하는 것도 많은 응답자가 어렵다고 대답하였다. 마지막은 응답자가 옷을 살 때, 직원이 추천하는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 거절할 경우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물건을 교환하거나 환불해야 할 경우, 응답자가 구매한 물건에 문제가 생겨 교환을 요청하는 말하기와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거절을 당하는 경우에 대처하는 말하기가 어렵다는 응답을 하였다.

방 구하기 상황에서는 학습자가 빈도가 높은 인터넷을 설치하는 상황과 집안 물품이 고장나는 상황까지 포함해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먼저 부동산에 가서 방을 구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고, 다음으로 “부동산에 가서 방을 구할 때”, “집주인과 계약할 때”, “인터넷을 설치하거나 해제시킬 때”, “하수도, 보일러, 냉장고 등 고장 났을 때” 등의 4가지 상황을 나누었다. <표 14>에서 보는 것과 같이 66% 응답자는 부동산에서 방을 구해본 적이 있고, 그 중에 집주인과 계약할 때 “계약기간 안에 갑자기 이사 가야 할 때 방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집주인과 상의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해야하는지 모른다.”라는 항목을 선택한 학습자가 51.4% 차지하였다. 자세한 결과는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방을 구할 때 어렵다고 생각하는 상황

	세부항목	합계(명)	백분율(%)
부동산에 가서 방을 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33	66
	아니오, 없습니다.	17	34
	계	50	100
부동산에 가서 방을 구할 때	내가 원하는 방에 대해 필요한 조건들(원룸인지 투룸인지, 가격과 보증금은 얼마이고, 가구가 있는지 등)을 직원에게 설명할 때,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3	8.8
	집주인에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싸게 해달라고 할 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다.	8	23.5
	부동산의 수수료는 얼마인지 물어보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해야하는지 모른다.	6	17.6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17	50
	계	34	100
집주인과 계약할 때	집주인에게 월세나 전기세, 수도세를 언제 또는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해야하는지 모른다.	6	17.1
	계약기간 안에 갑자기 이사를 가야하는데 방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집주인과 상의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해야하는지 모른다.	18	51.4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11	31.4
	계	35	100
인터넷을 설치하거나 해제시킬 때	회사에 전화해서 요금제나 할인 여부를 알아보고 싶을 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	10	18.5
	회사에 전화해서 인터넷 연결이 왜 안 되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른다.	12	22.2
	이사 갈 때 인터넷을 해제하거나 주소를 옮기고 싶을 때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른다.	17	31.5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6	11.1
	인터넷을 설치해본 적이 없다.	9	16.7
	계	54	100

하수도, 보일러, 냉장고 등 고장 났을 때	집주인에게 보일러가 고장 나서 수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른다.	9	15.3
	하수도가 막혔을 때 집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른다.	12	20.3
	가전제품이 고장 났을 때 A/S센터에 전화해서 한국어로 설명하기 어렵다.	14	23.7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5	8.5
	이런 경험이 없다.	19	32.2
	계	59	100

<표 14>에서 보듯이 응답자가 가장 어렵다고 대답한 것은 계약기간 안에 다른데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 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하는 것이다. 응답자가 다음으로 어렵게 느낀 것은 인터넷을 해제하거나 주소를 옮기기를 할 때 하는 말이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서는 먼저 이런 경험이 있는지와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다음에 이 부분은 “사장님과 대화를 할 때”, “손님과 대화할 때” 등 2가지 상황을 나누었다. 여기서 절반 이상의 학습자가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이 있고, 일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습자가 가장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려움이 느끼지 않는 학습자가 “사장님과 대화를 할 때”라는 항목에서는 30.8%, “손님과 대화할 때”라는 항목에서는 22.5%를 차지하였다. 그 중에 응답자가 가장 어렵다고 응답한 것은 손님에게 무언가를 말하였는데, 손님이 이해하지 못해 설명을 해야 하는 경우였다.

<표 15> 아르바이트를 할 때 어렵다고 생각하는 상황

	세부 항목	합계(명)	백분율(%)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32	64
	아니오, 없습니다.	18	36
	계	50	100
어디서	편의점	4	9.3
	호프집	7	16.3
	구이집(삼겹살집)	9	20.9

아르바이트를 해 보셨습니 까?	PC 방	1	2.3
	일반 음식점	13	30.2
	기타	9	20.9
	계	43	100
사장님과 대화할 때	면접을 볼 때, 아직 배우지 않은 단어가 갑 자기 나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모른 다.	11	28.2
	사장님과 아르바이트 시간을 상의할 때 어떻 게 말해야 하는지 모른다.	4	10.3
	월급에 대해서 사장님과 상의할 때 어떻게 말해야하는지 모른다.	7	17.9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고 싶을 때 사장님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른다.	5	12.8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12	30.8
	계	39	100
손님과 대화할 때	손님의 주문을 받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 지 어렵다.	4	10
	말을 때문에 손님이 내 말을 못 알아들 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어렵다.	13	32.5
	손님이 어떤 요리나 장(소스)에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물어볼 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모른다.	8	20
	손님이 리필을 원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받으 려고 나에게 물어볼 때 못 알아들어서 어떻 게 대답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6	15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9	22.5
	계	40	100

머리를 꾸밀 때는 “머리를 파마할 때”와 “머리를 자를 때” 2가지 상황으
로 나누어서 조사를 하였다. 여기서 대부분 학습자가 머리 스타일에 대해
설명할 때 어려움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는 다음 <표 16>
와 같다.

<표 16> 머리를 꾸밀 때 어렵다고 생각하는 상황

	세부 항목	합계(명)	백분율(%)
	직원에게 어떤 스타일의 파마를 하고 싶은지 말할 때, 단어를 몰라서 어려움을 느꼈다.	23	43.4

머리를 파마할 때	어떤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드라이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모른다.	9	17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7	13.2
	파마를 해본 적이 없다.	14	26.4
	계	53	100
머리를 자를 때 어떤	머리를 다듬고 싶을 때 설명하기 어렵다.	12	23.1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싶을 때 직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모른다.	17	32.7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13	25
	머리를 잘라 본 적이 없다.	10	19.2
	계	52	100

<표 16>에서 보듯이 헤어스타일에 대한 어휘들은 머리를 꾸밀 때에 응답자가 가장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설문조사에서는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말하기 수업 방식도 조사하였다. 응답자가 선호하는 한국어 말하기 수업의 유형은 <표 17>과 같이 나타났다.

<표 17> 응답자가 선호하는 한국어 말하기 수업의 유형

	한성대	성균관대	외국어대	합계(명)	백분율(%)
1. 짝활동	1	7	8	16	31.4
2. 소그룹 활동 (3-5명)	13	3	11	27	52.9
3. 대그룹 활동 (5명 이상)	4	1	0	5	9.8
4. 혼자서	1	1	1	3	5.9
계	19	12	20	51	100

<표 17>에서 보듯이 응답자가 가장 선호하는 말하기 수업의 유형은 3~5명의 소그룹 활동이고, 다음으로 선호하는 수업 유형은 짝활동이었다.

다음으로 응답자가 선호하는 부교재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드라마나 영화, 광고로 응답하였고, CD나 테이프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는 다음 <표 18>와 같다.

<표 18> 응답자가 선호하는 부교재의 유형

	한성대	성균관대	외국어대	합계(명)	백분율(%)
1. 드라마나 영화, 광고	16	7	15	38	65.5
2. 그림이나 사진	2	3	2	7	12.1
3. 교수님께서 직접 만든 자료	3	1	8	12	20.7
4. CD나 테이프	0	1	0	1	1.7
계	21	12	25	58	100

“응답자가 선호하는 학습 활동의 유형”이라는 항목을 살펴보면 언어 게임 방식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어떤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는 활동은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다. 반면에 대화를 암기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었다. 그 결과는 <표 19>와 같다.

<표 19> 응답자가 선호하는 학습 활동의 유형

	한성대	성균관대	외국어대	합계(명)	백분율(%)
1. 역할극	2	3	5	10	15.4
2. 노래	7	3	3	13	20
3. 어떤 주제에 대해 토론	9	1	7	17	26.2
4. 언어 게임	3	3	14	20	30.8
5. 대화 암기	1	3	1	5	7.7
계	22	13	30	65	100

마지막은 “한국어 말하기 학습 방법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자세히 써 주십시오.”라는 항목에서 세 명 응답자 외에 대부분의 응답자가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학습자가 응답한 내용으로는 동영상에 따라 대본 읽기, 선생님이나 한국 친구와 대화하기 등이 있었다.

2. 문제 상황과 관련된 선행 학습 검토

이 장에서 중국 학습자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서 이러한 문제 상황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 선행 학습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1 한국어교재의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이 되는 교재는 중국 학습자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학기관에서 출판한 통합교재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개 대학에서 개발된 교재 총 17권을 선장하였다.

<가>: 연세대학교 개발 《한국어》(1992년) 6권(초급2권, 중급2권, 고급2권)

<나>: 서울대학교 개발 《한국어》(2000년) 4권(초급2권, 중급2권)

<다>: 북경대학교 등 25개 대학 공동 개발 《표준한국어》(1995년) 3권(초급2권, 중급1권)

<라>: 북경대학교 개발 《한국어》(2000년) 4권(초급2권, 중급2권)

교재<가>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편찬한 교재인데, 낙양외국어대, 산둥대 등의 대학기관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습자들이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교재<나>는 대학기관에서도 사용하지만 상하이나 북경지역의 사설학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교재<다>는 한·중이 합작을 하여 편찬한 첫 교재이고 북경대학교, 북경경제무역대학교, 상하이외국어대 등의 많은 대학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교재<라>는 북경대학교의 조선문화연구소에서 편찬하였고,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에서 감독하여 개발되었다. 이 교재는 북경대학교, 북경외국어 제2대학교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 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여섯 개의 항목과 관련된 대화 장면을 네 교재의

본문에서 살펴볼 것이다. 먼저 각 교재에서 여섯 항목의 분포 상태를 검토하였다. 이 결과는 다음 <표 20>과 같이 나타난다.

<표 20> 교재에서 6가지 항목의 수록 상황

항목 교재	길 묻기	음식 주문하기	물건사기
교재<가>	버스정류장, 길에서(1-5), 길에서(2-12),	한식집(1-3) ¹¹⁾ , 식당(2-11),	【물건을 살 때】 과일가게, 문방구, 그림가게(1-4), (2-15), 【물건교환/환불할 때】 마켓(2-15),
교재<나>	길에서(2-12), 길에서(2-16),	한식당(1-13), 다방(1-24), 다방(1-26), 한식당(2-17),	【물건을 살 때】 마켓(1-12), 신문가판대(2-4), 헌책방(2-15), 옷가게(2-27),
교재<다>	버스정류장(1-24), 길에서(1-28),	한식당, 다방, 패스트푸드점 (1-19),	【물건을 살 때】 빵가게, 과일가게(1-16), 야채가게, 신발가게(2-14), 【물건교환/환불할 때】 옷가게, 전자제품가게(3-6),
교재<라>		한식당(1-13),	【물건을 살 때】 과일가게, 전자제품가게(1-17),

상황 교재	방 구하기	아르바이트 하기	머리 꾸미기
교재<가>	복덕방, 하숙집(3-21)		
교재<나>	하숙집(3-5), 하숙집(3-6),		
교재<다>			미장원, 이발소(2-17)
교재<라>			미장원, 이발소(1-22)

11) 1권 3과에서 수록된 한식당 장면을 표시한다.

교재를 검토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음식 주문하기와 물건사기는 4가지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반면에 아르바이트하기는 네 교재에서 모두 다루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발견하였다. 그리고 방 구하기 장면은 중급 단계에서 다루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다섯 가지의 장면은 초급 단계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여섯 가지의 항목들을 각 교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분석하도록 하겠다.

2.1.1 길 묻기

<표 20>과 같이 길 묻기 대화는 네 교재 모두 초급단계에서 다루고 있었다. 교재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살펴보면, 주로 버스정류장이나 길에서 이루어졌다. 대화문의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버스 정류장에서는 주로 목적지까지 가는 수단과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 그리고 목적지까지 얼마나 걸리는 지를 물어보는 대화가 있었고, 길에서는 주로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와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대화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에서 나와 있는 항목들을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21>와 같다.

<표 21> “길 묻기” 교재 분석¹²⁾

	세부항목	교재 <가>	교재 <나>	교재 <다>	교재 <라>
버스/ 버스정류장에서	어느 방향에서 버스를 타야 하는지 물어볼 때	×	×	×	×
	몇 번 버스를 타야하는지 물어볼 때,	○	×	○	×
	어느 정류장에서 내려야 할지 물어볼 때	×	×	○	×
	목적지까지 몇 정거장 남았는지 물어볼 때	×	×	×	×

12) “○”은 교재에서 다루고 있다는 의미이고, “×”은 교재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쳤을 때, 해결 방법을 물어보는 것	×	×	×	×
지하철/지하철역에서	어느 방향의 열차를 타야 되냐고 물어볼 때	×	×	×	×
	몇 번 출구로 나가야 되냐고 물어볼 때	×	×	×	×
	같은 방향으로 가는 열차라도 각 열차의 종착역은 다를 수 있는데, 이 열차의 종착역은 어딘지 또 이 열차를 타면 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	×	×	×
	사람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내려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	×	×	×	×
길을 잃어버릴 때	길을 잃어버린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	×	×	×
	한국 사람들이 길을 설명해줄 때 사용하는 “곧장, 곧바로, 쪽” 등의 어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¹³⁾	○	○	×	×

<표 21>를 보면, 설문조사에서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교재에서 몇 가지는 다루고 있지만 대부분 사항들은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1.2 음식 주문하기

네 교재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대화는 모두 초급단계에서 다루고 있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교재<나>와 교재<다>의 다방에서 음료를 주문하는 대화와 교재<다>에서 햄버거와 샐러드를 주문하는 대화를 제외하고 모두 한국 음식점에서 한식을 주문하는 대화로 구성되었다. 대부분 교재에서 친구와 같이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었다. 그런데 학습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인사를 하는 과정, 음식을 주문하고 추가하는 과정, 마지막으로 계산을 하는 과정은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3) 이 항목은 교재에서 “곧장, 곧바로, 쪽” 등 단어를 다루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설문조사의 항목을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 결과는 다음 <표 22>과 같다.

<표 22> "음식 주문하기" 교재 분석

	세부항목	교재 <가>	교재 <나>	교재 <다>	교재 <라>
식당 에서	요리 재료가 무엇인지 물어볼 때	×	×	×	×
	요리의 양(몇 인분인지)을 물어볼 때	×	×	○	×
	요리에 대해 다른 요구가 있어서(고추장을 조금 덜 넣어주세요 등) 물어볼 때	×	×	×	×
	반찬을 리필해달라고 말할 때	×	○	×	×
	식당 직원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를지 잘 모른다.	○	○	○	○
전화 로	내가 있는 정확한 위치를 설명할 수 없다.	×	×	×	×
	학습자가 배우지 않은 말을 상대방이 사용할 때, 당황해서 대답할 수 없다.	×	×	×	×

<표 22>과 같이, 교재에서 학습자가 요리의 재료나 양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조리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인 요구를 하는 대화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1.3 물건 사기

물건 사기 대화는 4가지 네 교재의 초급단계에서 모두 다루고 있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매우 다양한데, 과일을 사는 장면은 모든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그 밖에도 문구점, 마켓, 옷가게, 채소가게, 신발가게, 그림가게 등의 장면을 다루었다.

물건을 교환하거나 환불하는 대화는 교재<가>의 초급 2권에 실려 있으나 교재<다>에서는 중급 3권에 실려 있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내용을 살펴보면, 마켓이나 옷가게, 전자제품가게 등이 있고, 우산이나 녹음기가 고장이 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환불해 달라고 하는 내용과 옷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환불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에서 나온 항목들이 교재에서 수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그 결과는 다음 <표 23>와 같다.

<표 23> “물건 사기” 교재 분석

		세부항목	교재 <가>	교재 <나>	교재 <다>	교재 <라>
물 건 살 때	옷가게에 서 옷을 살 때	직원에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나 색깔, 옷감 등을 이야기할 때	×	○	×	×
		직원에게 다른 사이즈의 옷을 달 라고 할 때, 정확하게 말할 수 없 다.	×	×	×	×
		직원이 나에게 추천해 주는 옷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떻 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	×	×	×
	화장품을 설 때	내가 원하는 화장품의 명칭을 한 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모른다.	×	×	×	×
		내가 어떤 기능의 화장품을 원하 는 지 직원에게 설명할 수 없다.	×	×	×	×
		친척이나 친구에게 줄 선물을 고 를 때, 괜찮은 제품을 추천해달라 고 이야기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 는다.	×	×	×	×
	전자제품 을 살 때	전자제품의 성능에 대해 물어볼 때	×	×	×	○
		전자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얼마 동안인지, 그리고 제품이 고장 났 을 때 어디로 A/S 받으러 가야 하는지 물어볼 때	×	×	×	×
		제품의 가격을 싸게 깎아 달라고 하고 싶을 때	×	×	×	×
	핸드폰을 살 때	핸드폰의 성능에 대해 물어볼 때	×	×	×	×
		일시정지나 요금제 변경 등의 서 비스를 받고 싶을 때	×	×	×	×
물 건 산	교환하고 싶을 때	물건은 커(작다)서 교환하고 싶을 때	×	×	○	×
		이미 물건을 샀으나 마음이 변해 다른 것으로 교환하고 싶을 때	×	×	×	×
		내가 산 물건이 문제가 있어서 교환하고 싶을 때	○	×	○	×

후	환불하고 싶을 때	이미 산 물건에 대해 마음이 변 해서 환불하고 싶을 때	×	×	×	×
		내가 산 음식의 유통기간이 지나 서 환불하고 싶을 때	×	×	×	×
		내가 산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환불하고 싶을 때	×	×	×	×
		내가 환불하고 싶은 요구를 거절 을 당할 때	×	×	×	×

위의 <표 23>에서 보듯이, 물건을 살 때 전자제품 중의 녹음기를 구매하는 대화만 교재에서 다루고 있다. 반면에 학습자가 어려움을 겪는 화장품을 구매하는 대화나 핸드폰을 구매하는 대화는 교재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컴퓨터나 카메라 등의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대화는 교재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교재<가>과 교재<다>에는 물건을 교환하는 대화문이 실려 있으나 환불하는 대화문은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1.4 방 구하기

방 구하기 대화는 교재<가>와 교재<나>에서 모두 중급 3권에서 실려 있으나 교재<다>와 교재<라>에서는 실려 있지 않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내용을 살펴보면, 교재<가>에서는 복덕방에 하숙집이 있는지 문의하는 대화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하숙집에서 방을 구경하면서 가격이나 식사 및 근처의 시설에 대하여 문의하는 대화이다.

다음으로 설문조사에서 제시한 항목을 교재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표 24> “방 구하기” 교재 분석

	세부항목	교재 <가>	교재 <나>	교재 <다>	교재 <라>
부동산에	내가 원하는 방에 대해 필요한 조건들을 직원에게 설명할 때	×	○	×	×

가서 방을 구할 때	집주인에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싸 게 해달라고 할 때	×	×	×	×
	부동산의 수수료는 얼마인지 물어 보고 싶을 때	×	×	×	×
집주인과 계약할 때	집주인에게 월세나 전기세, 수도세 를 언제 또는 어떻게 내는지에 대 해서 물어보고 싶을 때	×	×	×	×
	계약기간 안에 갑자기 이사 가야 할 때 방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지 집주인과 상의하고 싶을 때	×	×	×	×
인터넷을 설치하거나 해제할 때	회사에 전화해서 요금제나 할인 여 부를 알아보고 싶을 때	×	×	×	×
	회사에 전화해서 인터넷 연결이 왜 안 되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	×	×	×	×
	이사 갈 때 인터넷을 해제하거나 주소를 옮기고 싶을 때 회사에 전 화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말 해야하는지 모른다.	×	×	×	×
하수도, 보 일러, 냉장 고 등 고장 났을 때	집주인에게 보일러가 고장 나서 수 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을 때	×	×	×	×
	하수도가 막혔을 때 집주인에게 도 움을 요청하고 싶을 때	×	×	×	×
	가전제품이 고장 났을 때 A/S센터 에 전화해서 설명할 때	×	×	×	×

위 <표 24>에서 보듯이, 방 구하기와 관련된 많은 상황이 교재에서 거
의 다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2.1.5 아르바이트하기

아르바이트하기는 네 교재에서 모두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의 학습자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와 일을 하면
서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화를 교재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

2.1.6 머리 꾸미기

머리 꾸미기 대화는 교재<다>와 교재<라>의 초급에 실려 있으나 교재<가>와 교재<나>에는 실려 있지 않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살펴보면, 미장원과 이발소에서 이루어지고, 내용은 비슷하다. 미장원에서 머리를 어떻게 할지를 미용사에게 의견을 구하는 대화가 있다. 또 이발소에서 머리를 잘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이발사가 조언을 해주는 대화가 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의 항목을 교재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표 25> “머리 꾸미기” 교재 분석

	세부항목	교재 <가>	교재 <나>	교재 <다>	교재 <라>
머리를 파마할 때	직원에게 어떤 스타일의 파마를 하고 싶은지 말할 때	×	×	×	×
	어떤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드라이를 하려고 할 때	×	×	×	×
머리를 자를 때	머리를 다듬고 싶을 때	×	×	○	○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싶을 때	×	×	○	○

위에 <표 25>을 보듯이, 머리 꾸미는 일은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하는 일이다. 교재<다>와 교재<나>에서는 머리 자르는 대화가 실려 있으나 파마에 대한 어휘나 머리 모양 등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2.2 선행 학습의 문제점

위와 같이 교재를 분석해 본 결과, 각 교재마다 장점도 많지만 개선해야 하는 단점들도 반결되었다.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구체적인 상황 장면들은 네 교재에서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한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대화를 예로 살펴보면, 교재<가>에서 1권 3과와 2권 11과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상황에서 다루는 대화문은 총 8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종업원과 일 대 일

로 직접 대화를 하는 장면은 2권 11과에서 한 번만 제시되어 있다. 다른 대화문은 모두 친구와 나누는 대화문이다. 종업원과 나누는 대화문은 교재 <나>에서 1권 13과와 2권 17과에서 대화문이 총 두 편을 다루었다. 그리고 교재<다>에서 1권 19과와 교재<라>에서 1권 13과에서 대화문을 하나만 다루고 있다. 다음으로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대화문을 제시하였다.

교재<가>:(2-11)

(1) 존슨 부인과 김 선생은 식당에 들어갔다.

존슨부인: 이 식당에서 무슨 음식을 제일 잘 합니까?

주 인: 삼계탕이 유명합니다.

존슨부인: 삼계탕요?

주 인: 잡수신 일이 없습니까?

존슨부인: 아직 먹은 일이 없는데요.

주 인: 잡쉴 보세요. 다들 좋아하니까요.

교재<나>:(1-13)

아주머니: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뭘 드릴까요?

영숙 : 메뉴 좀 주세요.

월순 : 불고기를 먹읍시다.

영숙 : 좋아요. 냉면도 먹을까요?

월순 : 네. 아주머니, 불고기하고 냉면 두 그릇 주세요.

교재<나>:(2-17)

철수 : 아이구, 벌써 한 시가 되었군요!

배고파서 죽겠는데 빨리 시킵시다.

월순 : 날씨가 쌀쌀한데 뜨거운 설렁탕을 먹을까요?

철수 : 좋아요. 여보세요. 여기 주문 좀 받으세요.

설렁탕 둘 주세요.

아주머니: 미안합니다. 설렁탕은 지금 안 되는데요.

갈비탕이나 비빔밥은 돼요.

철수 : 그럼 갈비탕으로 할까요?

월슨 : 그러지요. 나도 철수 씨와 같은 것으로 하겠어요.
아주머니, 깍두기도 많이 갖다 주세요.

교재<다>:(1-19)

(1) (이세민 씨와 왕단 씨는 같이 식당에 갔습니다.)

종업원: 손님, 뭘 드시겠습니까?

이세민: 아가씨, 이 식당에는 무슨 음식이 맛이 있어요?

종업원: 다 맛이 있어요. 우리 식당은 특히 회냉면이 맛이 있어요.

이세민: 왕단 씨, 그러면 우리 회냉면 먹을래요?

왕 단: 나는 회냉면을 먹고 싶지 않아요. 불고기가 먹고 싶어요.

이세민: 그래요? 그러면 나도 불고기를 먹겠어요. 아가씨, 여기 불고기 2인
분 주세요. 그리고 맥주도 한 병 주세요.

종업원: 네, 알겠습니다.

교재<라>:(1-13)

가: 좀 덥지 않습니까?

나: 네, 덥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냉수 좀 주십시오.

가: 뭘 드시겠습니까?

나: 저는 냉면을 먹겠습니다.

가: 저는 비빔밥을 먹겠습니다. 그러면 비빔밥하고 냉면을 시킵시다.

나: 네, 좋습니다.

가: 냉면 맛이 어떻습니까?

나: 참 맛이 있습니다.

가: 이것을 좀 잡수십시오.

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 오이김치입니다. 좀 맵습니다.

나: 팬찮습니다. 그리 맵지 않습니다.

가: 음료수는 뭘 하시겠습니까?

나: 인삼차를 마시겠습니다.

가: 저는 커피를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인삼차하고 커피를 주십시오.

나: 한국 음식은 참 맛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에 교재에서 다루는 대화문을 보듯이, 학습자들은 음식을 주문할 때 구체적으로 음식의 재료와 맛 및 음식의 양 등 세부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교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고 정형화되고, 단순한 대화문만을 다루고 있어 실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재에서 대화문을 제시할 때 단계별로 제시하지 않아 구체성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절차적인 대화문을 만들어야 한다.

음식을 주문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학습자에게 “들어가기 → 주문하기 → 부가 주문 → 계산” 이렇게 네 단계의 절차를 제시하고, 각 단계마다 변수 상황을 고려해서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가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음식의 재료나 맛 및 음식의 양 등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Ⅲ. 문제 상황별 요인분석과 해결 전략

본 장에서는 학습자들이 6가지 문제 상황에서 의사소통 장애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1. 문제 상황의 요인분석

앞의 연구방법에서 언어사용 상황에서 어휘, 화용, 정보, 문화 등 4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본 절에서 중국인 학습자가 6가지 문제 상황에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이 4가지 요소 중에 무엇이 결여되어 의사소통 장애가 일어나는지 분석할 것이다. 문제 상황의 요인 분석하는 데에 2장에서 설문 결과와 대비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26>와 같다.

<표 26> 학습자 수행하지 못한 언어요소

	어휘	화용	정보	문화
길 묻기	○	○	○	○
음식 주문하기	○	○	○	○
물건 사기	○	○	○	○
방 구하기	○	○	○	○
아르바이트하기	○	○	○	○
머리 꾸미기	○	○	○	

위 표에서 보듯이, 상황요인 분석을 통해 학습자가 언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서 의사소통 장애가 일어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1 길 묻기

먼저 첫 번째 요소인 어휘를 살펴보겠다. 어휘는 특정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특수 어휘를 말한다. 길 묻기에서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여 길을

물을 때 “정거장, 출구, 방향, 지나쳐다, 남다” 등 어휘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어휘 요소에서 문화 요소의 제약도 받는다.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휘 요소 측면에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이 길을 설명해줄 때 사용하는 “곧장, 똑바로, 쪽” 등의 어휘들을 중국인 학습자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길을 설명해줄 때 보통 방향을 나타내는 “동, 서, 남, 북” 등의 명사와 거리를 나타내는 “미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에서는 “동, 서, 남, 북”을 사용하지 않고, 보통 “앞, 뒤” 같은 방향을 나타내는 명사와 “곧장, 똑바로, 쪽” 등의 부사 및 “분,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명사를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곧장, 똑바로, 쪽” 등의 단어는 중국에서는 “어느 방향(동, 서, 남, 북)에 따라 간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정확한 방향 표현이 없이 “큰 길 따라서 앞으로 간다.”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모르면 어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화용 요소를 살펴보겠다. 화용 요소는 특정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문장들을 말한다. 여기서도 문화 요소의 제약을 받는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내릴 때 길을 내주라고 하는 말에서 바로 문화 차이로 볼 수 있다. 중국에서 길을 내주라고 할 때 보통 “請讓一下” 많이 쓰이고 한국어로 번역하면 “비켜주세요”라는 것인데 교재<가> (1-5)에서 길을 내주라고 할 때 “내립니다. 좀 비켜 주십시오.”라는 말도 실려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 중에 길을 내주라고 할 때 “비켜주세요”라는 말은 사람에게 매너 없고 건방지다는 느낌이 주기 때문에 보통은 “잠깐만요. 또는 잠시만요.”라는 표현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학습자가 이러한 문화 차이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화용적인 측면에서 곤란함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은 정보 요소를 살펴보겠다. 정보 요소는 각 상황과 관련된 특정한 정보를 말한다. 중국 북경 지역의 지하철은 출발역과 종착역이 항상 일치하여 타기 쉬운데 반해, 서울 지역의 지하철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열차라도 각 열차의 종착역은 다를 수 있다. 또한 출발역이 같지만 종착역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사람을 혼동하게 한다. 한국 버스의

종류에 관한 지식과 버스에 내릴 때 항상 벨을 누르는 것 등의 정보를 학습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보들을 잘 모르면 학습자는 곤란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

1.2 음식 주문하기

먼저 어휘 요소를 살펴보겠다. 음식을 주문할 때 요리 재료와 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일(이, 삼)인분, 소(중, 대)자, 깻잎, 고추” 등의 어휘들이 이에 해당된다. 음식을 주문하는 데에 양국 간의 호칭문화 때문에 다르게 사용하는 어휘들이 있다. 중국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보통 “小姐(아가씨)”¹⁴⁾, “服務員(종업원)” 등 호칭어를 많이 사용한다. 또한 “여보세요”라는 호칭어를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예의 없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한국 음식점에서는 “服務員(종업원)”이라는 호칭은 사용하지 않고, 교재에서 보통 “아줌마”라는 호칭어를 가르치고 있으나, 실제 생활에서는 “아주머니”, “이모” 등의 호칭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레스토랑이나 양식당 같이 분위기가 서구적인 곳에서는 아저씨, 아줌마와 같은 전통적인 호칭보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느낌이 있는 “여보세요”, “여기요”라는 호칭으로 종업원을 부른다.¹⁵⁾ 중국인 학습자에게 이러한 어휘들을 가르칠 때 양국의 호칭문화 차이도 같이 설명해주면 이해하기가 더 좋다.

화용 요소 측면을 살펴보겠다. 음식 주문하기에서는 양국 간의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다르게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다. 거절할 때 양국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예로 들면, 종업원이 “뭘 더 드릴까요?”라는 질문을 했는데 필요 없을 경우에는 중국에서 직접적인 거절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때는 중국인들은 보통 “不需要了(필요 없어요)”라고 대답한다. 이에 비하여 한국에서 보통 “괜찮습니다.”라고 우회적으로 거절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러한 특수 화용적인 표현들을 학습자에게 가르쳐 줄 때 양국 간의 문화

14) 요즘 중국에서 “小姐(아가씨)”라는 호칭이 성별 차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보통 “服務員(종업원)”라고 많이 부른다.

15) 조항록(2008), 『외국인을 위한 한국 사회와 문화』, p.80 참조.

차이도 같이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정보 요소를 살펴보겠다. 음식을 주문하는 상황에서는 한국 음식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곰탕, 부대찌개” 등의 한국요리를 조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

1.3 물건 사기

먼저 어휘 측면을 살펴보겠다. 물건 사기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조건들을 말할 때 한국어로 대응되는 어휘를 몰라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옷감, 색깔, 화장품 명칭, 전자제품의 성능 등에 관한 어휘들이 이에 해당된다. 물건 사기에서도 양국의 호칭문화 차이 때문에 다르게 사용하는 어휘들이 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물건을 살 때 대부분 “營業員(점원)”이라고 부르고, 최근에 많은 지역에서는 여종업원이나 여자 손님에게 기분 좋게 하려고 “美女, 靚女(미녀)”라고 많이 부르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보통 “여기요”, “저기요”라고 많이 부르고 여종업원이나 여자 손님을 부를 때 “언니”라고도 부른다. 따라서 학습자가 양국의 이러한 문화 차이를 모르면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화용 요소를 보면, 일상적 상황에서 물건을 살 때 어떤 물건에 대한 호감이 있고 가지고 싶다는 뜻을 표현하려면 “좋아한다.”라는 문장보다 “마음에 들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점원이 추천한 물건들에 대해 만족하지 않아서 보통 “돌아보고 올게요.”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완곡하게 거절하는 뜻을 표현한다. 이러한 한국인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들도 학습자에게 가르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정보 요소 측면을 살펴보면, 물건을 사는 상황에서는 학습자에게 가르칠 필요한 정보들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전자제품을 수리할 때 필요한 절차, 핸드폰 요금제 변동 등의 서비스를 받는 절차, 그리고 교환이나 환불할 때 필요한 절차 등의 정보들을 학습자가 숙지하고 못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1.4 방 구하기

어휘 요소를 살펴보면, 방 구하기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방의 조건(하숙, 월세, 원룸, 투룸, 옵션 등)을 부동산 직원에게 설명할 때와 집에 있는 것이 고장 날 때 관련된 어휘(보일러, 하수도, 막히다 등)를 잘 모를 경우에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화용 요소를 살펴보겠다. 방을 구할 때 자주 쓰는 문장을 예를 들면, 방 보증금과 월세를 같이 말할 때는 보통 “500에 30짜리 방” 이런 문장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방을 구한 후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요청할 때 보통 사람들이 “작동하지 않다”라는 문장보다 “불이 들어오지 않다”라는 문장을 많이 쓰이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언어관습을 알아야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은 정보 요소를 살펴보겠다. 방 구할 때는 필요한 정보들을 학습자에게 가르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보통 한국에서 하숙, 월세, 전세로 집을 구할 수 있고, 하숙집을 제외한 두 유형의 집을 구할 때는 보증금이 필요하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전세와 같은 방을 세놓은 제도는 없고 보증금 금액도 한국보다 크지 않다. 그러므로 학습자에게 이러한 정보들을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계약할 때 주의사항과 요금을 내는 방법, 인터넷을 설치, 해제 또는 주소를 옮길 때 필요한 절차 등 정보를 잘 모를 때 의사소통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

1.5 아르바이트하기

아르바이트하기에서는 먼저 어휘 요소를 살펴보면, 어느 장소에서 일하면 거기서 사용하는 어휘들은 잘 모를 때 상대방의 요구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음식점에서는 그릇, 쟁반, 소스, 리필, 치우다 등 단어들이 있고, 편의점에서는 폐기, 거스름돈, 찍다, 음료수, 주류 등의 단어들이 있다. 이러한 어휘들을 잘 알지 못하면 상대방의 요구도 알아들을 수 없기에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아르바이트할 때 쓰는 화용적인 표현을 살펴보겠다.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을 예로 들면,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지 물어볼 때 “아르바이트생 구하세요?”라는 표현이나 “사람을 구하는 광고를 보고 왔는데요.”라는 표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특정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을 학습자에게 가르쳐야 한다.

정보 요소 측면을 살펴보겠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면접에 임할 때 의사소통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많은 학습자들이 중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면접할 때 직업별로 어떤 질문을 받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직업별로 면접하는 상황 대화를 제시할 수 없어도 일반적인 학습자가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를 면접하는 상황의 대화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마지막은 문화 요소를 살펴보겠다. 아르바이트하기에서는 사장님과 면접하는 상황도 있고, 일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대인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5가지 상황보다 더 복잡하다. 여기서도 양국의 문화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중국어는 한국어처럼 공손법이 그리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직위가 높은 사람이더라도 존댓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국에서 직위가 높은 사람은 직위가 낮은 사람에게 반말을 사용할 수 있지만 직위가 낮은 사람은 직위가 높은 사람에게 존댓말을 사용해야 한다. 초급 중국인 학습자가 이 문화 차이를 몰라윗사람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의 문화 차이를 학습자에게 설명해야 학습자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하더라도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1.6 머리 꾸미기

머리 꾸미기에서는 먼저 어휘 요소 측면을 살펴보면, 머리 자를 때 “다듬다, 자르다, 손질하다” 등의 기본 어휘를 제외하고 머리모양과 관련한 용어는 대부분 외래어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이해하기 무척 어렵다. 예를 들면, 머리를 꾸미고 싶을 때 “파마”나 “염색”, 또는 머리 스타일에 관한

어휘들을 잘 알지 못 하는 경우에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수많은 머리 스타일에 관한 외래어를 다 가르칠 수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어휘만 가르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머리 꾸미기와 관련된 화용 요소를 살펴보겠다. 예를 들면, 미용실에 들어가면 미용사가 보통 “어떻게 해드릴까요?”라고 많이 물어보고, 손님이 어떤 스타일을 할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보통 “지금 유행하는 스타일 뭐예요?” 또는 “추천할 게 있나요?”라고 미용사에게 질문을 한다. 이처럼 머리 꾸미 때에 사용하는 표현들을 학습자에게 가르쳐야 한다.

마지막은 정보 요소를 살펴보겠다. 머리 꾸미기에서는 학습자가 필요한 정보들을 가르쳐야 한다. 예를 들면, 머리 스타일이 너무 다양하고 많아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미용실에 가서 파마나 커트를 하고 싶을 때 사진집과 잡지를 참고하여 머리 스타일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요즘에 인기가 많은 드라마나 영화 주인공의 머리 스타일만 이야기하면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을 미용사에게 간단히 알릴 수 있다. 이처럼 미용실에 관한 정보를 학습자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위에서 분석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길 묻기, 음식 주문하기, 물건 사기, 아르바이트하기의 경우 앞에서 설정한 네 가지 요소 모두가 의사소통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방 구하기와 머리 꾸미기는 문화 요소를 제외한 세 가지 요소가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2장에서 이루어진 교재분석 결과와 같이 보면, 학습자가 배운 방식은 일반적인 어휘와 정형적인 문장을 결합한 대화문이었다. 하지만 실제상황에는 상황별로 특수한 어휘, 화용, 정보, 문화 등의 요소가 결합하여 다양한 대화 내용들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학습자는 한국어에 대한 선행 학습을 했더라도 실제상황에서 의사소통 장애를 겪을 수 있다.

2. 해결 전략

3장 1절에 요인분석에서 분석하였듯이 각 상황에서 학습자가 어휘, 화용, 정보, 문화 등 요소에서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대화문이나 수업활동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본 장에서는 구체적인 해결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길 묻기에서는 4가지 요소에서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한다. 이는 학습자가 성장한 환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습자가 지하철의 종착역이 어디인지 파악하기 매우 어려워하는 이유는 양국의 교통정보가 다르기 때문이다. 길거리에서 길을 물어볼 때 한국인이 사용하는 “곧장, 똑바로, 쪽” 등의 어휘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양국의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학습자에게 양국의 문화적 차이를 비교하면서 가르쳐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문화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지하철 노선도를 이용하여 지식을 가르쳐 주거나 역할극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음식 주문하기에서도 4가지 요소에서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습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한국 음식과 관련된 어휘와 정보이다. 그래서 이 내용은 생생한 그림이나 한국 음식을 주제로 만드는 영화를 학습자에게 보여 주고 활동시간에 상황극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직관적 감각을 길러 주면서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어휘와 정보 외에 음식점에서 사용한 화용 표현과 양국에 호칭문화의 차이도 학습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물건 시기에서는 4가지 요소에서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하지만 학습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각 구체적인 상황에서 많이 사용하는 특수 어휘와 화용적인 표현, 그리고 정보에서 필요한 정보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필요한 정보들을 학습자에게 알려 주고, 각 상황별로 필요한 어휘와 화용적인 표현들은 카드를 제시하여 언어게임과 상황극을 통해 학습자에게 가르칠 수 있다.

방 구하기에서는 3가지 요소에서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지만 학습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상황에 적절한 언어적 표현과 정보들이다. 이 부분은 학습자에게 방을 구하는 상황들을 알려줘야 하며 어휘 카드를 제시하여 언어게임이나 역할극을 통해 학습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아르바이트하기에서는 4가지 요소에서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한다. 학습자들이 많이 경험하는 직업과 관련된 어휘들을 학습자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어휘와 화용 표현을 가르칠 때는 학습자들이 짝을 지어서 역할극으로 연습하여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토론이나 발표를 통해 학습자가 아르바이트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직업별로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정확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머리 꾸미기에서는 3가지 요소에서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한다. 머리 스타일에 관련된 어휘들은 그림카드를 이용한 언어게임을 통해 학습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를 짝을 지어서 역할극을 하여 머리를 할 때 필요한 정보와 화용 표현을 익힐 수 있다.

이상의 각 상황별로 제시한 해결전략에 따라 다음 장에서 교수 학습 방법을 구성하도록 하겠다.

HANSUNG
UNIVERSITY

IV. 전략에 따른 유형별 교수 학습 방법

앞에서 문제 상황별 요인분석과 해결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상황별에 따라 교수 학습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교수 내용 조직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6가지의 상황별 교재분석 결과와 의사소통 장애가 생기는 요인을 결합해서 새롭게 구성한 대화문의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대화문은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제시한 대화문은 초급 수준의 학습자를 고려하고, 실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대화를 본문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3장에서 분석한 내용에 따라 학습자가 학습할 필요가 있는 특수 어휘, 화용, 정보, 문화 등의 내용은 “알고합시다!”라는 부분에서 제시하고자 한다.¹⁶⁾ 그리고 학습자가 실제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익힐 수 있도록 구어체 대화문을 구성하기로 한다.

1.1 길 묻기

현재 교재에 나타난 길 묻기 대화는 버스 정류장과 길에서의 대화를 많이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해결 전략에 따라 교재에서 다루지 않은 지하철 안에서의 대화를 <예 1>과 같이 예로 들었다.

<예 1> 지하철 안에서 길 묻기 대화

16) “알고 합시다!”라는 부분에서 학습자가 알아야 어휘와 관련 내용은 “**어**”로 표현하고 화용과 관련 내용은 “**화**”로 표현한다. 상황맥락과 문화맥락 요소도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 가려고 지하철을 타는 중)

학 생: 실례합니다.^① 이 열차 인천까지 가요?

아주머니: 아니요, 이게 천안에 가는 열차예요.^②

학 생: 네? 그래요? 그럼, 내려야 해요?

아주머니: 아니요, 구로역에서 내리고 인천행 열차를 갈아타면 돼요.

학 생: 네. 알겠습니다. 도착하면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어요?^③

아주머니: 그래요. 도착하면 얘기해 주세요.^④

학 생: 감사합니다.

(잠시 후)

아주머니: 학생, 이번 역이 구로역이다.

학 생: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문 쪽으로 가면서]

잠시만요,^⑤ 내릴게요!^⑥

☞ 알고합시다!

① **화** “실례합니다.” ⇒ 비슷한 말은 “실례지만”, “실례합니다만”,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여기요”, “저기요” 등이 있다.

② **화** “이 열차가 천안에 가는 열차예요.” ⇒ 비슷한 말은 “이 열차가 천안행이에요.”, “이 열차가 천안까지 가요.” 등이 있다.

※ **어** **정** ××행: ××까지 가는 열차. (종착역은 ××이다.)

예) 천안행: 천안까지 가는 열차. (종착역은 천안이다.)

인천행: 인천까지 가는 열차. (종착역은 인천이다.)

1호선 지하철도:

☞ 알고합시다!



③ **화**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 비슷한 말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등이 있다.

※ **어** **정** 구로역: 구로(지역명) + 역. 【한국 사람이 말할 때와 지하철 안내 방송에서 항상 지역명과 “역”을 붙여서 같이 사용한다.】

예) 이번 역은 한성대입구역(한성대입구 + 역)입니다.

시청역(시청 + 역)에서 내립니다.

④ **정** 아주머니도 잘 모를 때 ⇒ “나도 잘 모르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라는 대답을 할 수 있고, “안내방송이 나오니까, 잘 듣고 내리세요.”라는 대답도 할 수 있다.

⑤ **화** **문** “잠시만요.” ⇒ 여기서 “잠깐만요”, “실례합니다.” 등의 표현으로 바뀌어 쓸 수 있다.

⑥ **화** “내릴게요!” ⇒ 비슷한 말은 “좀 지나갑시다!” 등이 있다.

<예 1>에서 보듯이 앞부분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길을 묻는 기본형 대화를 제시하였고, 뒤에 “알고합시다!”라는 부분에서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변형 사례를 제시하였다.

1.2 음식 주문하기

학습자에게 가장 필요한 대화는 바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대화이다. 그래서 위에 제시한 전략에 따라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대화문을 구성하는 예를 다음과 같이 보이고자 한다.

<예 2>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대화

(식당에 들어가기)

종업원: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①

손 님: 두 명어요.

종업원: 여기 앉으세요! 주문하시겠어요?^②

손 님: 좀 이따가 주문할게요.^③

(주문하기)

손 님: 여기요!^④ 주문할게요!^⑤

종업원: 뭘 드시겠어요?

손 님: 아주머니, 여기 뭐가 맛있어요?^⑥

종업원: 다 맛있는데 손님들이 부대찌개가 제일 맛있다고 해요.^⑦

손 님: 부대찌개? 부대찌개는 뭐로 만들어요?^⑧

종업원: 부대찌개는 햄, 소시지, 라면 등으로 만들어요.

손 님: 아, 그래요? 부대찌개 양이 많아요? 1인분이에요?

종업원: 네, 1인분이에요. 두 명이 드시면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손 님: 그러면 부대찌개 하나하고 물냉면 하나 주세요! 그리고, 제가 매운 것을 잘 못 먹어서 음식은 좀 덜 맵게 해주세요!

종업원: 네, 금방 헤드리겠습니다.

(추가 주문하기)

손 님: 아주머니, 여기 한 명 더 올 테니까 제육볶음 하나 추가요.

종업원: 예^⑨, 알겠습니다.

손 님: 그리고, 반찬도 좀 더 주세요!^⑩

종업원: 예, 금방 갖다 드릴게요!^⑪

(계산하기)

손 님: 여기 얼마예요?^⑫

종업원: 예, 총 9천500원이에요. 맛있게 드셨어요?^⑬

손 님: 네, 잘 먹었습니다. 돈이 여기 있습니다.

종업원: 예, 만원을 받았어요. 여기 거스름돈입니다.

손 님: 네, 안녕히 계세요!

종업원: 다음에 또 오세요!

☞ 알고합시다!

① **[화]** “몇 분이세요?” ⇒ “몇 명이에요?”, “몇 명이야?” (종업원의 나이가 많거나 손님과 친할 때 사용한다.)

② **[화]** “주문하시겠습니까?” ⇒ 비슷한 말은 “주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드시겠습니까?”, “뭘 잡수시겠습니까?” 등이 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 “뭘 먹을래(요)?”, “뭘 줄까(요)?”, “뭘 시킬래(요)?” (종업원은 나이가 많거나 손님과 친할 때 사용한다.)

③ **[화]** “잠 이따가 주문할게요.” ⇒ 비슷한 말은 “잠시만 기다리세요!” 등이 있다.

④ **[문]** **[어]** “여기요!” ⇒ “저기요”, “여보세요”, “사장님”으로 바뀌서 쓸 수 있다.

“여기요!” ⇒ “아주머니”, “이모” (아주머니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할 때 많이 사용한다.)

※ “아줌마”라고 부르면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 조심해서 써야 한다.

⑤ **[화]** “주문할게요!” ⇒ “주문 좀 받으세요!”, “주문요!” 로 바뀌서 쓸 수 있다.

⑥ **[화]** “여기 뭐가 맛있어요?” ⇒ “맛있는 음식을 추천해주실 수 있어요?”, “무슨 음식을 제일 잘해요?”로 바뀌서 쓸 수 있다.

※ “여기 맛있어요?”라는 질문은 종업원에게 “이 식당이 맛없다”라는 오해를 줄 수 있어서 사용하지 말아야 좋다.

⑦ **[화]** “다 맛있는데 손님들이 부대찌개가 제일 맛있다고 해요.” ⇒ “우리 집의 부대찌개가 일품입니다.”, “우리 집의 부대찌개는 아주 맛있어요.”, “부대찌개 유명해요.”로 바뀌서 쓸 수 있다.

☞ 알고합시다!

- ⑧ **[화]** “부대찌개 뭐로 만들어요?” ⇒ “부대찌개 안에 뭐가 들어가요?”로 바뀌서 쓸 수 있다.
- ⑨ **[어]** “예” ⇒ “예”는 “네”의 뜻이 같아서 바뀌 써도 된다.
- ⑩ **[화]** “반찬도 좀 더 주세요!” ⇒ “반찬 좀 더 주실 수 있어요?”, “반찬 좀 더 주실래요?”, “반찬 좀 리필해주세요!”로 바뀌서 쓸 수 있다.
- ⑪ **[화]** “금방 갖다 줄게요!” ⇒ “금방 갖다 드릴게요!”로 바뀌서도 쓸 수 있다.
- ⑫ **[화]** “여기 얼마예요?” ⇒ “여기 계산 좀 해주세요!”, “계산요”로 바뀌서도 쓸 수 있다.
- ⑬ **[화]** “맛있게 드셨어요?” ⇒ “잘 먹었어요?”로 바뀌서도 쓸 수 있다. (손님과 친할 때 사용한다.)

위에 제시한 예문은 식당에서 주문하는 예문이다. 앞부분은 “들어가기, 주문하기, 추가 주문, 계산”의 네 단계로 나누어서 기본형 대화를 제시하였다. 뒤에 “알고합시다!”라는 부분에서 변형 사례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학습자가 한국 음식에 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다음 내용을 만들었다.

<예 3> 한국요리 방법

[어] [정] 한국 음식 종류(조리 방법에 의해 분류):

1. 찌개류: “국”과 비슷하나 “국”보다 물을 적게 넣고 끓인 음식.

예): **[요리 재료 + 조리 방법]** 김치찌개 (김치 + 찌개),

순두부찌개 (순두부 + 찌개), 된장찌개 (된장 + 찌개)

※ 여기 잠깐!

[예외] 부대찌개: 햄, 소시지 등 재료로 넣어서 끓인 찌개. 예전에, 미군 부대에서 나온 고기로 찌개를 끓였던 데에서 유래한다.

섞어찌개: 고기와 여러 가지 야채를 섞어서 끓인 찌개.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부대찌개

2. 탕(湯)종류 : “국”의 높임말. “국”과 같으나 “국”보다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오랫동안 끓여서 진한 국물 맛을 내는 음식.

예): 【요리 재료 + 조리 방법】 삼계탕 (인삼 + 닭 + 탕), 갈비탕 (갈비 + 탕)

※ 여기 잠깐!

【예외】 곰탕, 설렁탕: 소뼈를 푹 끓여서 먹는 국을 곰탕이라고 하고, 밥과 사리를 넣어 먹으면 설렁탕이라고 한다.



삼계탕



갈비탕



곰탕



설렁탕

3. 볶음종류: 어떤 재료에 양념을 하여 볶아서 만든 음식.

예): 【요리 재료 + 조리 방법】 제육볶음 (제육 + 볶음),
오징어볶음 (오징어 + 볶음), 낙지볶음 (낙지 + 볶음)

【조리방법 + 재료】 볶음밥 (볶음 + 밥), 볶음우동 (볶음 + 우동)



제육볶음



오징어볶음



볶음밥



볶음우동

4. 부침(전)종류: 밀가루에 야채나 고기를 몰과 섞어서 후라이팬에 얇게 펴서 부쳐낸 음식.

예): 【요리 재료 + 조리 방법】 김치 부침개 (김치 + 부침개),
호박 부침개 (호박 + 부침개), 해물파전 (해물 + 파 + 전)



5. 구이종류: 고기나 생선에 양념을 하여 구운 음식.

예): 【요리 재료 + 조리 방법】 생선구이 (생선 + 구이),
조개구이 (조개 + 구이)

※ 여기 잠깐!

【예외】 숯불구이: 숯이 타는 불로 고기나 생선을 구운 음식.(조립 방법이다)



생선구이



조개구이



숯불구이

6. 튀김종류: 생선이나 고기, 야채 등을 밀가루에 묻혀서 기름에 튀긴 음식.

예): 【요리 재료 + 조리 방법】 새우튀김 (새우 + 튀김),
감자튀김 (감자 + 튀김), 오징어튀김 (오징어 + 튀김)

※ 여기 잠깐!

【예외】 모듬 튀김: 그 가게에서 파는 튀김 종류별로 담아서 주는 음식.



새우튀김



감자튀김



오징어튀김



모듬튀김

7. 무침종류: 채소와 고기들을 그대로 쓰거나 삶거나 하여 양념과 섞어서 만든 음식.

예): 【요리 재료 + 조리 방법】 골뱅이무침: 골뱅이 + 무침,
콩나물무침: 콩나물 + 무침, 오이무침: 오이 + 무침



골뱅이무침



콩나물무침



오이무침



1.3 물건 사기

교재에서는 다양한 물건을 사는 대화를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 학습자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핸드폰을 사는 대화는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핸드폰을 사는 대화문 구성의 예를 다음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예 4> 핸드폰 사는 대화

(핸드폰가게에서 핸드폰을 고르기)

직원: 어서 오세요!

학생: 여기 외국인 가입할 수 있어요?

직원: 예, 그럼요. 신규로 할 거예요? 번호이동을 할 거예요?^①

학생: 신규요.

직원: 네. 혹시 찾으시는 폰 있으세요?^②

학생: 네, 사진도 되고, MP3도 되고, TV도 되는 슬라이드폰^③요.

직원: 네, 이 핸드폰 어때요?^④ 디자인도 예쁘고 기능도 좋아요.^⑤

학생: 이 디자인으로 은색은 없나요?

직원: 은색은 없어요.

학생: 네.^⑥저 핸드폰도 좀 보여주세요?

직원: 네, 고객님. 여기 있습니다.

학생: 이거 TV도 볼 수 있어요?

직원: 그럼요. 이 핸드폰은 사진도 잘 나오고, 음악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학생: 이거 얼마예요?

직원: 15만 원입니다.

학생: 좀 비싸네요. 깎아 주실 수 없어요?^⑦

직원: 그럼 12만 원에 드릴게요.

학생: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할게요. 참, 이거 A/S^⑧는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직원: 1년까지는 무료입니다.

학생: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직원: 예, 고객님. 지금 바로 개통해드릴게요.

(핸드폰 등록하기)

직원: 손님, 여기에 이름, 주소, 외국인등록번호를 쓰고, 마지막 부분에 서명해주세요.^⑨

학생: 네.

직원: 마지막 4자리 숫자는 손님이 원하시는 번호로 해드릴게요.

여기에 쓰세요. 그리고 요금제는 어떤 것으로 하시겠어요?

학생: 학생이라서 요금제는 제일 싼 것으로 해주세요.

직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기본 요금제로 해드릴게요.

학생: 네, 감사합니다.

직원: 핸드폰 요금은 통장에서 나가는 걸로 하실 거예요? 아님 손님이 직접 내실 거예요?

학생: 통장에서 나가는 걸로 해주세요.

직원: 네, 손님. 통장과 외국인등록증을 주시고 복사 좀 할게요.

학생: 네, 여기 있습니다.

직원: 개통되었으니까 바로 쓰실 수 있어요.

학생: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직원: 안녕히 가세요.

☞ 알고합시다!

① **[어]** 신규 ⇒ 지금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 핸드폰을 사고 통신사에 가입하는 것.

번호이동 ⇒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때 번호를 바꾸지 않고 핸드폰만 새로 사는 것.

[정] ※ 한국의 통신사는 SK, KTF, LG가 있다. 통신사마다 핸드폰이 다르다. 핸드폰 모양이 같아도 SK의 핸드폰은 KTF에서 쓸 수 없다.

② **[화]** “찾으시는 폰 있으세요?” ⇒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말은 “어떤 폰을 원하세요?”, “여기 와서 구경해보세요!”, “어떤 디자인을 원하세요?” 등이 있다.

③ **[어]** ※ **핸드폰 종류** ⇒ 핸드폰 종류는 슬라이드폰(滑盖机), 폴더폰(翻盖机), 고정형식폰(直板机) 등 있고, 요즘은 스마트폰(智能机)이 유행이다.



슬라이드폰

폴더폰

고정형식폰

스마트폰

④ **[화]** “이 핸드폰은 어때요?” ⇒ 여기서 쓸 수 있는 말은 “이 핸드폰은 좋아하세요?”, “이 핸드폰은 마음에 드세요?” 등이 있다.

⑤ **[화]** “디자인도 예쁘고 기능도 좋아요.” ⇒ 여기서 쓸 수 있는 말은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디자인이에요” 등이 있다.

⑥ **[정]** 만약에 마음 드는 것 없어서 나오고 싶을 때 ⇒ “다른 데도 좀 보고 올게요.”, “돌아보고 올게요.” 등 말을 하고 나가면 된다.

⑦ **[화]** “깎아 주실 수 없어요?” ⇒ 여기서 쓸 수 있는 말은 “깎아주세요!”, “싸게 해주세요!”, “좀 싸게 주실 수 없어요?” 등이 있어요.

☞ 알고합시다!

⑧ ☐ “A/S” ⇒ 물건이 산 후 관리해주는 기간을 말한다.

※ “A/S 센터”: 물건이 산 후 관리해주는 기관이다.

⑨ ☐ “서명” ⇒ 여기에는 “사인”으로 바뀌서 쓸 수도 있다.

<예 4>에서 보듯이 앞부분에서 제시된 대화는 핸드폰을 살 때의 기본형 대화이고, 뒤에 “알려드릴게요!”라는 부분에서 제시된 대화는 다양한 상황 변수를 고려해서 변형한 사례들이다.

1.4 방 구하기

2장의 교재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교재에서 방 구하기는 대부분 하숙집에서 방을 둘러보면서 집주인에게 방 값이 얼마인지, **요금**을 포함하는지와 식사를 어떻게 제공할 하는지에 대한 대화문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방을 구하는 대화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가 방을 구할 때는 부동산과 관련된 대화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여기서 부동산에서 방을 구하는 대화문의 예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예 5> 부동산에서 방을 구하는 대화

(부동산 안에 문의하기)

학 생: 안녕하세요! 방 구하려고 왔는데요!

중개인: 네, 어떤 방을 구하세요?^①

학 생: 월세방^②을 구하려고요.

중개인: 혼자 쓰시나요?^③

학 생: 아니요, 친구와 같이 쓰려고요.

중개인: 네, 그러면 원룸을 원하세요? 투룸을 원하세요?

학 생: 투룸요.

중개인: 월세금과 보증금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④

학 생: 월세는 25만 원정도요. 보증금은 500만 원정도요.

중개인: 500에 25짜리^⑤방은 지금 없네요. 언제 이사하시려고요?

학 생: 바로 이사하고 싶어요.^⑥

중개인: 그럼 500에 30짜리 방은 어때요? 지금 비어 있으니깐 바로 이사할 수 있어요.^⑦

학 생: 몇 층이에요?

중개인: 3층요.

학 생: 좋아요. 지금 방을 볼 수 있나요?

중개인: 네. 그럼요.

(이사할 집 안에 둘러보기)

중개인: 이 집이에요. 한 번 둘러보세요.

학 생: 깨끗하네요.

중개인: 얼마 전에 집주인이 도배와 장판을 다 했으니까요.

학 생: 옵션은 뭐가 있어요?^⑧

중개인: 옵션은 냉장고와 텔레비전만 있어요.

학 생: 네, 알겠습니다. 집 잘 봤습니다.

중개인: 마음에 드세요? 계약하시려면 부동산으로 나오세요.

학 생: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 안에 계약하기)

중개인: 여기 계약서 내용을 한 번 읽어보세요. 계약 기간은 몇 년으로 할 거예요?

학 생: 1년으로 계약할게요.

중개인: 예, 보증금은 500만 원이고, 월세는 매월 후불로 30만 원입니다. 계약금은 50만 원이고요, 잔금은 이사 올 때 가져오세요. 월세는 주인 계좌로 송금하면 돼요.^⑨ 확인해보세요.

[계약서를 꺼낸다.]

학 생: 네, 맞아요. 그리고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요금은 따로예요?
 중개인: 네. 그리고 만약에 냉장고와 텔레비전을 쓰다가 고장이 나면 학생이 수리를 해야 돼요.
 학 생: 네, 알겠습니다.
 중개인: 그러면 여기에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핸드폰 번호를 쓰고 마지막에 서명하세요.
 학 생: 네. 사장님, 수수료^㉔가 얼마예요?
 중개인: 15만 원이에요.
 학 생: 제가 학생이어서 돈이 많지 않아요. 조금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중개인: 응...그래요. 학생이니깐 13만 원만 주세요.
 학 생: 감사합니다, 사장님. 여기 있습니다.
 중개인: 네, 13만 원 받았습시다. 이사는 학생이 편한 시간에 하세요.
 학 생: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중개인: 안녕히 가세요.

☞ 알고합시다!

① **화** “어떤 방을 구하세요?” ⇒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말은 “어떤 방을 원하세요?”, “전세인가요? 월세인가요?”등 있다.

② **어** **계** 월세방(月租房) ⇒ 다달이 돈을 내고 집이나 방을 빌려 쓰는 형태.

전세방(年租房) ⇒ 집의 주인이 일정금액을 받고 상대방에게 집을 사용한 후 기간이 만료되면 일정금액을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통해 집을 빌려 쓰는 형태.

하숙집(寄宿房) ⇒ 다달이 돈을 내고 방을 빌려 쓰는 형태인데 보통은 식사를 제공한다.

고시원(考試院) ⇒ 주로 각종 고시 및 시험을 준비하는 장기 수험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주거시설이다. 방이 작고 보증금도 없고 비용 싸서 많은 학생도 살고 있다.

※ 월세방이나 전세방은 부동산에서 구할 수 있고 하숙집이나 고시원은 대부분 주인이 직접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 알고합시다!

③ [화] “혼자 쓰시나요?” ⇒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말은 “혼자 사세요?”, “혼자 사시려고요?” 등이 있다.

④ [화] “월세금과 보증금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말은 “월세와 보증금은 얼마 정도요?”, “월세와 보증금은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등이 있다.

[정] ※ 보증금(保証金)제도: 집에 입주하기 전에 주인에게 주는 돈은 보증금이라고 한다. 보증금은 이사 나갈 때 주인이 다시 돌려준다.

⑤ [정] “500에 25짜리 방” ⇒ “보증금은 500만 원에 월세는 25만원짜리 방”의 줄인 말이다.

⑥ [화] “바로 이사하고 싶어요.” ⇒ 여기서는 “바로 이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로 바뀌서 쓸 수도 있다.

⑦ [화] “바로 이사할 수 있어요.” ⇒ 여기에서는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로 바뀌서 쓸 수도 있다.

⑧ [화] “옵션(選項)은 뭐가 있어요?” ⇒ “옵션”은 가구와 가전제품을 말한다. “가구와 가전제품은 뭐가 있어요?”라는 말도 쓸 수 있다.

[어] [정] ※ 옵션: 보통의 옵션은 침대, 책상,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텔레비전 등이 있다. 그런데, 옵션이 없는 데도 많다. 이때는 필요한 것을 중고 가구점(중고 전자제품점)에서 싸게 살 수 있다.

⑨ [어] [정] 후불(后付款) ⇒ 먼저 한 달 산 후에 돈을 지불하는 것.

계약금(定金) ⇒ 계약을 할 때 먼저 지불하는 돈.

잔금(余款) ⇒ 보증금 중에 계약금을 빼고 남은 돈.

송금(匯款) ⇒ 돈을 부쳐 보내는 것.

⑩ [어] “수수료” ⇒ 여기서 “중개수수료”라고도 하고, “복비”라고도 한다.

<예 5>에서 보듯이 부동산에서 방 구하기 대화문의 앞부분은 문의하기, 이사할 집을 둘러보기, 계약하기 등 세 단계를 나누어서 기본형 대화를 제시하였고, 뒤 부분에서는 변형 사례를 구성하였다.

1.5 아르바이트하기

아르바이트하기 대화문은 교재에서 전혀 다루지 않고 있으나, 학습자의 유학생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어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한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직업과 관련된 용어나 정보는 일을 하면서 학습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학습자가 아르바이트 구하려고 사장님과 면접할 때 나누는 대화의 예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반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습자의 비율이 가장 많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일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구하는 장면만 제시하도록 하겠다.

<예 6> 아르바이트 구하는 대화

(일반 음식점에서 사장님과 대화하기)

학 생: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세요?^①

사장님: 네, 구합니다. 학생이세요?^②

학 생: 네, 중국학생입니다.

사장님: 한국말 잘하시는데.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됐어요?

학 생: 1년 됐어요.

사장님: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이 있어요?

학 생: 없어요. 여기서 어떤 일을 해요?

사장님: 청소, 서빙, 그리고 주문 받는 것인데요. 특별히 어려운 일은 없어요.

학 생: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저녁시간에 아르바이트생 구하는데 괜찮아요?

학 생: 월요일은 6시부터 8시까지 수업이 있어서 안 되고, 다른 요일은 다 괜찮아요.

사장님: 월요일은 손님이 많지 않으니까 수업 끝나고 와도 괜찮아요.

학 생: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집이 어디예요? 가까워요?

학 생: 네, 가까워요. 여기서 5분만 걸려요.^③

사장님: 우리 집은 시간당 4천 원인데, 괜찮아요?

학 생: 네. 근데 일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사장님: 내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④

학 생: 네.

사장님: 그럼 내일 만나요.^⑤

학 생: 네,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 알고합시다!

① **화**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세요?” ⇒ 여기서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경우는 “아르바이트 구하는 광고를 보고 왔는데요.”라는 말도 쓸 수 있다.

② **어** ※ “아르바이트생”에서 “아르바이트”는 표준말인데 보통 “알바”라는 말은 많이 쓰고 있다. 여기서 “알바생”이라고도 한다.

③ **정 문** “학생이세요?” ⇒ “학생인가요?”로 바뀌서 사용할 수도 있다. 사장님이 반말을 “학생인가?”라고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답할 때는 직위가 높은 사람에게 존경의 뜻을 표현한 존댓말을 사용해야 한다.

※ 아르바이트생을 이미 구했다는 경우에는 사장님이 “죄송합니다. 저희 이미 사람을 구했어요.”라고 대답해 줄 수도 있다.

④ **화** “여기서 5분 쯤 걸려요.” ⇒ 여기에서는 “5분이면 갈 수 있어요.” 또는 “5분 안에 갈 수 있어요.”로 바뀌서 쓸 수도 있다.

⑤ **화** “내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 여기에서는 “내일부터 바로 나올 수 있어요?”로 바뀌서 쓸 수도 있다.

⑥ **화** “그럼 내일 만나요.” ⇒ 여기에서는 “내일부터 같이 일하는 것으로 합시다.”, “내일부터 일은 시작하세요!” 또는 “내일부터 나오세요!”로 바뀌서 쓸 수도 있다.

<예 6>에서 보듯이, 앞부분은 학습자가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사장님

과 대화할 때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넣어서 기본형 대화문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뒷부분에 변형 대화문을 구성하였다.

1.6 머리 꾸미기

머리 꾸미기는 교재에서 다루고 있으나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머리 스타일 등 어휘와 파마하기, 염색하기 등을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파마할 때 대화의 예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예 7> 머리 파마할 때 대화

(미용실에서 머리 파마하기)

미용사: 어서 오세요!

학 생: 안녕하세요!

미용사: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떻게 해 드릴까요.^①

학 생: 파마하고 싶어요.^②

미용사: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③

학 생: 요즘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이 뭐예요?

미용사: 지금 물결펌^④이 유행이에요.^⑤

학 생: 물결펌요?

미용사: 네, 요즘에 <내조의 여왕>에서 김남주가 한 헤어스타일^⑥이에요.

학 생: <내조의 여왕>요?^⑦

미용사: 아, 드라마 못 보셨군요. 사진 보여드릴까요?

학 생: 네, 좀 보여주세요.

미용사: 잠깐만 기다리세요.

[잡지를 가져와서 사진을 가리키면서]

이 사진이에요. 어때요? 예쁘죠?

학 생: 예쁘네요. 근데 저한테 어울릴까요?

미용사: 그럼요. 머리가 기니까 물결파마가 어울릴 거예요.

학 생: 다른 헤어스타일은 없나요?

미용사: 스트레이트펌이 있고 세팅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원하세요?

학 생: 잘 모르겠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을 가져온다]

미용사: 이게 스트레이트펌이고 다음사진은 세팅펌이에요.

학 생: 두 번째 거는 예쁘네요. 근데 가격은 얼마예요?

미용사: 5만 원요.

학 생: 네. 그럼 이걸로 해주세요!^⑧

미용사: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⑨

(파마한 후 계산하기)

미용사: 다 됐어요! 마음에 드세요?^⑩

학 생: 네, 마음에 들어요. 계산 좀 해주세요.

미용사: 예, 5만 원입니다.

학 생: 카드 돼요?

미용사: 그럼요. 여기서 사인해주세요!^⑪

학 생: 네. 안녕히 계세요!

미용사: 안녕히 가세요!

☞ 알고합시다!

① **화** “어떻게 해 드릴까요.” ⇒ “어떻게 하시겠어요?”, “것으로 해드릴까요? 파마로 해드릴까요?”로 바뀌서 쓸 수도 있다.

② **화** “파마하고 싶어요.” ⇒ “파마하려고 해요.”로 바뀌서 쓸 수도 있다.

③ **화**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 여기서는 “어떤 스타일로 해 드릴까요?” 또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로 바뀌서 쓸 수도 있다.

④ **어** “파마”가 표준말인데 보통 한국 미용실에서 “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펌”은 “파마”의 줄인 말이다.

☞ 알고합시다!

“물결펌” 【“물결(波浪)” + 파마】 , ⇒ 물결 모양으로 하는 파마.

“세팅펌” 【“세팅(setting)” + “파마”】 ⇒ 일정한 열을 가하여 머리카락을 둥글게 말아 올려 전체적인 머리 모양을 보기 좋게 하는 파마.

“스트레이트펌” 【“스트레이트(straight)” + 파마”】 ⇒ 주로 곱슬머리 모발을 똑바로 펴게 하는 파마.



물결펌



세팅펌



스트레이트펌

※ 머리 자를 때 “커트(cut)”라는 단어보다는 “컷”을 더 많이 쓴다. “컷”도 “커트”의 줄임말이다. “샤기컷”, “보브컷” 등이 있다.

“샤기컷” 【“샤기(shaggy)” + “커트”】 ⇒ 모발 끝을 일률적인 길이로 자르지 않고 불규칙하게 커트함으로서 보다 움직임이 살아나는 커트.

“보브컷” 【“보브(bob)” + “커트”】 ⇒ 어깨 위 정도의 길이에 수평으로 두께가 일정한 단발머리.



남자샤기컷



여자샤기컷



보브컷

⑤ **화** “지금 물결펌이 유행이에요.”⇒ 여기서는 “요즘에 사람들이 물결펌을 많이 해요.”로 바뀌서 쓸 수도 있다.

⑥ **정** “김남주가 한 헤어스타일” ⇒ 머리 스타일을 말할 때 직접 말하는 것도 있고, 요즘 인기가 많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을 붙여서 “xxx의 헤어스타일” 또는 “xxx 머리스타일”과 같이 말할 수도 있다. 예) “구준표 머리스타일” 등.

☞ 알고합시다!

⑦ **화** “<내조의 여왕>요?” ⇒ 여기서는 “어떤 스타일이에요?”로 바뀌서 쓸 수도 있다.

⑧ **화** “이걸로 해주세요!” ⇒ 여기서는 “이 스타일로 해주세요!” 또는 “이걸로 할게요!” 등으로 바뀌서 쓸 수도 있다.

⑨ **화**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여기서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심만 기다리세요!”, 또는 “잠깐만 앉아계세요!” 등으로 바뀌서 쓸 수도 있다.

⑩ **화** “마음에 드세요?” ⇒ 여기서는 “거울 좀 보세요!”, 또는 “맘에 들어요?” 등으로 바뀌서 쓸 수도 있다.

⑪ **화** “여기서 사인해주세요!” ⇒ 여기서는 “서명해주세요!”로 바뀌서 쓸 수도 있다.



2. 교수 방법

3장에서 학습자가 의사소통 장애가 생기는 요인을 분석을 하였고, 4장 앞부분에서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6가지 상황의 대화문을 예로 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본 절에서는 수업활동 구성의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학습자가 선호하는 회화 수업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업활동을 구성하도록 한다. 2장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습자가 가장 선호하는 회화수업의 유형은 소그룹 활동이고, 다음으로는 짝활동이다. 부교재에서 학습자가 가장 선호하는 것은 드라마나 영화, 광고이고, 다음 순서는 교사가 직접 만드는 자료와 그림이나 사진이다. 학습 활동의 유형에서 학습자가 가장 선호하는 것은 언어 게임이고, 다음으로는 토론, 노래, 역할극 순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 이러한 학습자가 선호하는 수업활동은 각 상황별과 맞추어 2개씩 제시하도록 한다. 1절의 교수내용은 초급 수준으로 맞추어 제시하였기 때문에 본 절에서도 초급 학습자의 수준으로 맞추었다.

2.1 길 묻기

길 묻기 수업활동에서는 지도그림을 이용하여 학습자가 선호하는 짝활동을 이용한 역할극과 언어게임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2.1.1 역할극

학습자들이 짝을 지으면 서울 지하철 1호선 노선도를 나누어 주고, 위에 제시된 예문을 참조하여 각자 역할을 맡아서 한 사람이 출발역과 도착역을 정해서 다른 한 사람에게 길을 묻게 한다. 끝나고 나서 순서를 바꿔 다시 연습하게 한다. 이 활동은 노선도를 이용해서 학습자에게 한국에 지하철 정보가 부족한 것을 보완할 수 있다.

2.1.2 언어 게임

먼저 큰 지도 한 장을 칠판에 걸고 학생 한 명이 앞으로 나오게 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학생들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종이에 적어놓게 한다. 이 학생에게 “왼쪽, 오른쪽, 쪽, 똑바로” 등의 단어를 사용해서 지도를 보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설명하게 한다. 이때 지명은 말하면 안 된다. 앞에 있는 학생은 그 학생이 하는 말을 듣고 가는 길을 지도에 표시해야 한다. 이 활동이 끝나면 두 학생이 답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게임을 통해서 학습자가 어휘의 정확한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쉽게 기억할 수도 있다.

2.2 음식 주문하기

식당에 음식을 주문하는 상황에서는 4장 1절에서 조직한 교수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가장 선호하는 부교재인 영화를 시청한 후 발표하는 것과 역할극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2.2.1 발표

한국 요리에 대한 정보와 어휘가 부족한 학습자들에게 한국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이해시켜서 가르쳐야 한다. 한국음식에 대해 소개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영화나 드라마를 학습자에게 시청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에게 대표적인 한국음식을 알려 주기 위해 영화를 시청하기 전에 4장 1절에서 제시한 음식 종류를 먼저 설명한다.

음식을 다루는 대표적인 영화로는 《식객》이 적합하다. 이 영화는 직접적으로 학습자에게 한국 음식문화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식객》을 시청한 후 교사가 학습자에게 과제를 부여한다. 영화를 통해 한국 요리에 대해 느끼는 것을 기술하고, 다음 수업시간에 한 명씩 나와서 자기가 기술한 내용을 다른 학습자 앞에서 발표한다.

2.2.2 상황극¹⁷⁾

식당이라는 맥락에서 학습자에게 언어관습을 가르치려면 가장 좋은 수업 활동은 상황극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활동은 공동체 언어 학습법 (CLL)¹⁸⁾을 사용해서 진행하게 된다.

교사가 먼저 학습자에게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4단계 상황을 제시해서 이 상황에서 어떤 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다음으로 학습자가 중국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면, 교사는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학습자는 한국어로 된 번역을 따라서 반복한다. 다른 학습자들이 중국어와 한국어로 된 두 문장을 다 듣는다. 다음에 말하는 학습자의 위 학습자가 만들 문장을 이어서 대화문을 만든다.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대화문을 완성한다. 교사는 학습자가 만든 대화문을 칠판에 쓰고, 미리 만든 메뉴판을 이용하여 교실에서 식당장면을 설정하여 역할극을 해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학습자 두 명이 앞으로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역할을 선택하고 대본을 이용하여 식당에 있는 것처럼 연극을 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학습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배우고 싶은 내용을 배울 수 있으므로 더 실제적이고 흥미로운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17) 본고에서 제시하는 상황극과 역할극은 차이가 있다. 상황극을 할 때는 내용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만드는 것이고 역할극을 할 때는 교사가 먼저 비슷한 내용을 제시하고 학습자가 그 내용을 바꾸고 역할을 나누어 연습하는 것이다.

18) 공동체 언어 학습법은 Community Language Learning이라는 용어를 번역한 것으로 집단 언어 학습법으로도 불리기도 하는 모국어를 활용한 언어 교수 방법의 하나로 상담 기법에 기초하여 만들었으므로 상담 학습(counselling - learning)이라고도 한다. CLL을 응용한 상황극에서 틀에 맞춰져있는 대화 상황이 아닌 학습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의 발화를 학습자 자신에게 직접 추출하여 그것으로 대화문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실제 일상생활에서 보다 효과적인 한국어 학습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2.3 물건 사기

4장 1절에 조직한 교수 내용에 기초하여 핸드폰을 사는 수업활동은 그림카드를 이용한 언어 게임과 역할극으로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2.3.1 언어 게임

이 활동은 카드를 통해서 진행된다. 교사가 미리 준비한 핸드폰 관련 카드를 종류별로 칠판에 붙인다. 카드 종류는 기능(음악을 들 수 있다, TV를 볼 수 있다 등), 색깔(검은색, 핑크색 등), 양식(스마트폰, 슬라이드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카드를 칠판에 붙인 다음에 학습자 한 명씩 앞으로 나와서 좋아하는 카드를 고르게 한다. 다음으로 학습자가 고른 카드를 사용하여 “내가 좋아하는 핸드폰”에 대해 말하게 한다.

2.3.2 상황극

핸드폰 사기 상황에서 상황극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핸드폰 요금제 종류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는 것인데, 한국의 통신사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요금제를 이용하여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다. 한국의 통신사마다 요금제가 매우 다양해서 학습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요금제를 선택할 수 없게 되고, 요금제를 잘못 선택하면 돈도 많이 들게 된다. 이로 인해 많은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느꼈다고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는 학습자가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요금제들을 정리해서 가르쳐줘야 한다.

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교사가 미리 정리한 핸드폰 요금제 몇 개를 학습자에게 나누어 주고 간단하게 설명한다. 다음으로 대화문을 이용하여 실제 핸드폰을 사는 상황극을 한다.

2.4 방 구하기

방 구하기의 수업활동에서는 학습자가 선호하는 소그룹 게임 활동과 짝 활동으로 하는 역할극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2.4.1 언어 게임

이 활동은 방 구할 때 학습자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보다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먼저 교사가 전체 학습자들은 3-5명이 한 그룹으로 만들고 단어 카드 (월세방, 학숙집, 보증금, 옵션, 계약금 등)를 한 부씩 나누어 준다. 학습자 한 명이 먼저 카드 한 장을 선택하여 카드에 있는 단어를 같은 그룹의 구성원에게 설명한다. 설명할 때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해서 안 되고 구성원들은 무슨 단어인지 추측해서 맞힌다. 단어를 맞춘 학습자가 다음 단어를 선택하고 이어서 게임 진행하다. 정해진 시간 안에 가장 많은 단어를 맞추는 그룹은 이기는 것이다.

2.4.2 역할극

이 활동은 앞부분의 교수 내용에서 제시한 한국의 부동산과 집의 형식에 대한 정보를 응용해서 진행한다. 교수가 미리 월세나 전세, 방 개수, 층수 및 금액을 적힌 그림 카드를 여러 개 만들고 수업시간에 칠판에 붙인다. 학습자에게 짝을 만들어서 활동하게 한다. 한 명은 방을 구하는 학생의 역할을 하고, 한 명은 부동산 사장님의 역할을 한다. 방을 구하는 학생은 여러 그림 카드 중에 한 장 또는 두 장을 선택해서 부동산의 사장님과 대화를 연습한다.

이 활동을 통해 집을 구할 때 학습자가 필요한 어휘와 정보 및 대화방식 등을 연습할 수 있다.

2.5 아르바이트 하기

4장 1절에서 조직한 교수 내용에 기초하여 아르바이트 하기의 수업활동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발표와 토론하는 것을 제시하겠다.

2.5.1 발표

이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직업별로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활동을 진행하기 전에 교사가 학습자에게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를 물어본 다음에 한국에서 유학생들이 주로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 다음으로 교사는 학습자 3~5명을 한 그룹으로 나누고 “만약 내가 ××회사의 사장이라면 내가 어떤 학생을 고용할 것인지(직원 채용하는 조건)”과 “만약 내가 학생이라면 내가 어떤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것인지(내가 선택한 직업은 나에게 어떠한 능력을 양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라는 두 주제를 학습자에게 제시한다. 각 그룹은 두 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룹 구성원끼리 토론하여 문장 하나를 만든다. 15분 후에 각 그룹은 한 명씩 대표로 앞에 나와서 그룹 구성원들 간에 논의한 내용들을 발표한다. 다른 학생들은 발표를 들으면서 질문할 수 있다.

2.5.2 토론

이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아르바이트의 이로움과 해로움에 대해 알게 될 수 있고, 학습자에게 아르바이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게 도와줄 수 있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교사가 전체 학습자에게 외국에 유학을 하는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물어본다. 다음으로 교사는 학습자에게 아르바이트의 이로움과 해로움을 생각하게 하고, 전체 학습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중심으로 토

론하게 한다. 정해진 순서에 맞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활동이다.

2.6 머리 꾸미기

4장 1절에 조직한 교수 내용에 기초하여 머리 꾸미기의 수업활동에서 짝을 지어 활동하는 역할극과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게임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2.6.1 역할극

이 활동은 학습자가 머리를 꾸밀 때 관련된 어휘와 정보를 학습하기 위해 진행하는 활동이다.

교수 내용에서 머리 스타일과 관련된 어휘와 정보를 먼저 설명하고 진행한다. 교사가 파마와 관련된 어휘 및 커트와 관련된 어휘를 그림 카드를 만들고, 수업시간에 칠판에 붙인다. 다음으로 학습자에게 짝을 만들어서 활동하게 한다. 한 명은 머리를 꾸미려는 학생의 역할을 하고, 한 명은 미용사의 역할을 한다. 머리를 꾸미는 학생은 여러 그림 카드 중에 자기가 원하는 머리 스타일을 선택해서 미용사와 대화를 나누는 연습을 한다. 이 활동을 통해 머리를 꾸미려고 하는 학습자가 필요한 어휘와 정보 및 대화 방식 등을 연습할 수 있다.

2.6.2 언어 게임

이 활동은 학습자가 머리를 꾸밀 때 필요한 어휘(파마, 커트, 염색, 다듬다 등)를 익히기 위해 하는 것이다. 교사가 학습자에게 이러한 단어를 미리 설명한 후에 진행해야 한다.

먼저 교사가 학습자 4~5명을 한 그룹으로 나누어 줄로 서게 한다. 다음으로 교사가 미리 준비한 중국어로 된 단어카드를 맨 앞의 학습자에게 주

고, 뒤에 있는 학습자에게 한국어로 설명하게 한다. 세 번째 학습자가 앞에 학습자가 한 말을 이해하고 뒤의 학습자에게 전달한다. 마지막 학습자는 앞 사람이 설명하는 말을 듣고 어떤 단어인지 추측하고 칠판에 적는다. 이런 방식으로 단어를 맞추는 그룹이 이기게 된다.



V. 결 론

본고에서는 중국에서 한국어를 처음 접한 학습자들에게 일상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필요한 대화내용과 이를 위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II장에서 문제 상황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면접조사에서 피면접자가 어려워하는 11가지 상황을 크게 나누었고, 11가지 상황에서 학습자가 가장 많이 부딪히고 상황 변수가 많은 6가지 상황을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세부적인 상황을 확인하였다. 2절에서는 “아르바이트하기”를 제외한 5가지 문제 상황들이 중국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교재에 수록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선행 학습 경험을 분석한 결과, 기존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정형적인 단순한 대화문은 실제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III장에서 문제 상황별 요인분석과 해결 전략을 제시하였다. 1절에서는 “길 묻기, 음식 주문하기, 물건 사기, 방 구하기, 아르바이트하기” 등 6개 상황을 나누어서 각각 어휘, 화용, 정보, 문화 등 요소의 측면에서 요인분석을 하였다. 이 중에 길 묻기, 음식 주문하기, 물건 사기, 아르바이트하기는 이 네 가지 요소에서 학습자가 의사소통 문제를 생기고, 방 구하기와 머리 꾸미기는 문화 요소를 제외한 세 가지 요소에서 의사소통 문제를 생긴 것으로 밝혔다. 2절에서는 각 상황별에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하는 요인과 대응하는 해결 전략은 주로 수업방식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 전략에 따른 유형별 교수 학습 방법을 제시하겠다. 1절에서는 먼저 앞장에서 분석한 학습자가 의사소통 장애를 겪게 되는 어휘, 화용, 정보, 문화 등의 4가지 요소와 대응하여 각 유형별로 교수 내용을 조직하였다. 2절의 교수 방법에서는 1절에서 제시한 대화문을 바탕으로 언어게임과 역할극 그리고 상황극 등의 수업 활동방식을 조직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한국어 교육의 교수 학습 내용 중에서 결여되어 있는 현실성과 구체성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모범이 되는 대화문만을 가

르치는 것이 아니라 각 상황의 변수를 고려하여 실제적인 대화 내용을 다룰 수 있다. 이는 학습자의 일상적 말하기 활동에서 겪게 되는 문제 상황과 해결전략을 다룬 연구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고에서 제시한 학습자가 어려움을 느끼는 6가지 상황의 예시들은 한계가 있다. 대표적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학습자는 일반식당에서 음식 주문하기, 전화로 음식 주문하기, 그리고 커피숍에서 주문하기 등의 여러 상황에서 발생하는 대화를 어려워하는데 본고에서는 일반음식점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만 제시하였다. 물건을 사는 상황도 마찬가지로 핸드폰을 구매하는 대화만 다루었다.

앞으로 각 상황별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대화문을 만들어 나가고, 구어체의 예문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후속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북경대학교 외(1996), 『표준한국어1』, 북경대학출판사.
북경대학교 외(1996), 『표준한국어2』, 북경대학출판사.
북경대학교 외(1996), 『표준한국어3』, 북경대학출판사.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0), 『한국어1』, 문진미디어.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0), 『한국어2』, 문진미디어.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0), 『한국어3』, 문진미디어.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0), 『한국어4』, 문진미디어.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1992), 『한국어1』,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1992), 『한국어2』,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1992), 『한국어3』,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1992), 『한국어4』,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1992), 『한국어5』,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1992), 『한국어6』, 연세대학교 출판부.
북경대학교 조선문화연구소(2000), 『한국어1』, 민족출판사.
북경대학교 조선문화연구소(2000), 『한국어2』, 민족출판사.
북경대학교 조선문화연구소(2000), 『한국어3』, 민족출판사.
북경대학교 조선문화연구소(2000), 『한국어4』, 민족출판사.

2. 연구논저

김충실(2006),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수방법 연구』, 박이정.
남기심 외(199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방법과 실제』,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로만 야콥슨(1989), 『문학 속의 언어학』, 文學과知性社.
조향록(2008), 『외국인을 위한 한국 사회와 문화』, 소통.

- 한재영 외(2005), 『한국어 교수법』, 태학사.
- 허용·오문경(2005), 『즐거운 한국어 수업을 위한 교실 활동 100』, 박이정.
- Brown, H. D.(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4th Ed.)*. (한국어판: 이흥수 외 역, 2001, 외국어 학습·교수의 원리, 서울: Pearson Education Korea).
- Brown, H. D.(2001),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on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2nd Ed.)*. (한국어판: 권오량 외 역, 2001, 원리에 의한 교수. 서울: Pearson Education Korea).
- Diane Larsen-Freeman(2000), *Techniques and Principles in Language Teaching*,(한국어판: 방영주 역, 2003, 외국어 교육의 교수 기법과 원리, 도서출판 동인.)
- Nancy Bonvillain, *Language, Culture, and Communication*. (한국어판: 한국사회언어학회 역, 2002, 문화와 의사소통의 사회언어학. 한국문화사.)
- 陳楓(2008), 『對外漢語教學法』, 中華書局.
- 崔玉山 외(2006), 『邊听邊說韓語, 生活中最常說的900句』, 中國宇航出版社.
- 王爲玲 외(2008), 『韓語口語話題大全』, 世界圖書出版公司.
- 牛林杰 외(2005), 『大學韓國語 (1-4)』, 北京大學出版社.
- 具顯禎 외(2008), 『中韓交流標準韓國語會話教程(初級, 中級)』, 人民教育出版社.
- 강보유(2002), “중국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교수법”, <한국어교육> 1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강승혜(2003),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학습자 요구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8,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강신도(2000), “한국어 교재개발에 관하여-「기초조선어」편찬 경험 소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1>, 태학사.
- 고은희(2001), “한국어 회화 교육에 대한 단상”,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2>, 태학사.

- 구현정(2001), “대화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말하기 교육”, <말> 25,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권혁철(2002), “극화 학습방법을 통한 말하기 능력 신장방안”,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3>, 태학사.
- 김미경(2007), 「의사소통전략 훈련을 위한 한국어 말하기 교육 방안 연구-소통 장애 극복을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유향(2008), 「한국인과 중국인의 거절 화행 비교를 통한 한국어 교수 학습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란(2002),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말하기 수업방안 및 실제”,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3>, 태학사.
- 김영희(2000), “한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한국어 교수대강”,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1>, 태학사.
- 김정숙(1998),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어 교육 원리 및 모형”, <이중언어학> 15, 이중언어학회.
- 김종태(2001), “한국어 회화 교육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2>, 태학사.
- 김지선(2008), 「한국어 길 안내 상황에서의 외국인 대상어와 교재 진정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2008), 「의사소통전략을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교수법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마숙향(2001), “말하기의 실제와 발전 방향”,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2>, 태학사.
- 묘준매(2001), “저학년 회화 교육에서의 교제법 사용”,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2>, 태학사.
- 문영자(2001), “회화실력 향상을 위한 교육방법에 관하여”,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2>, 태학사.
- 박갑수(2002),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수법”,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3>, 태학사.

- 박미화(2009), 「상황맥락을 통한 중국어 회화 교수법 연구」, 경희대학교 중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박숙자(2001), “중국에서의 한국어 기초교재 개발방안”,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2>, 태학사.
- 방혜숙(2007),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인사표현 양상과 그 효과적 교수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18-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백봉자(1999), “서양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한국어 교육> 1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백봉자(2005), “말하기 · 듣기 교육의 교수 학습”, <한국어교육론3>, 한국문화사.
- 손정일(2005), “중국의 한국어 교재”, <한국어교육론1>, 한국문화사.
- 심재기(2002), “언어의 여섯 가지 기능”, <사고와 표현>, 한성대학교 출판부.
- 심재기·문금현(200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 연구 - 국어 텍스트의 활용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17, 이중언어학회.
- 안경화·김정화·최은규(2000), “학습자 중심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방향에 대하여”, <한국어교육> 11-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안병호(2000), “중국에서 한국어 교재의 사용 실태와 그 개발 방안”,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 1>, 태학사.
- 안일여(2008), 「초급 한국어 교재 내 대화문의 실제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정호(2005), “한국어 교육에서의 TV드라마 활용 방안 연구”,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6>, 태학사.
- 양현민(2005), 「한국어교육에서의 과제중심의 말하기 수업 구성 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우주희(2004), 「한국어 초급 학습자의 수업 활성화를 위한 게임 활용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병달 외(1997), “Role Playing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신장 연구”, <논문집> 30, 삼척대학교.

- 이동은(2003), “학구적 목적의 한국어 토론 수업 방안”, <한국어교육>1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득춘(2000), “중국인용 한국어 교재와 관련되는 몇 가지 문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1>, 태학사.
- 이 암(2008), 「KGP수업에서 토론 전략 훈련이 말하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인 한국어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어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정자(2001), “그룹활동을 통한 의사소통능력 신장 연구 - 과제수행 중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해영(1999), “통합성에 기초한 교재 개작의 원리와 실제”, <한국어교육> 1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해영(2005), “말하기 · 듣기 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한국어교육론3>, 한국문화사.
- 장광군(2000), “낙양외국어대학의 한국어 교재”,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1>, 태학사.
- 장미숙(2005), 「의사소통전략 훈련이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수행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니나(2007),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교육 연구 - 중국인 학습자의 담화 표지 사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조항록(2003),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적 논의”, <한국어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지 연(2004), 「중국내 대학교의 한국어 교재 분석과 교재 개발방안」, 상명대학교 대학원 한국학과 한국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최권진(2008), “학습자 모국어를 활용한 한국어 교수 · 학습 방법의 모색”, <한국어교육> 19,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최수진(2008), “효율적인 한국어 회화 수업을 위한 학습자 요구 분석 - 중국 대학의 교수와 학생의 학습 방법 선호도 비교를 중심으로

- 로”, <인문과학연구> 14, 同德女子大學校.
- 최희수(2005), “외국어 교육에서의 의사소통 문제”,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6>, 태학사.
- 한윤정(2002), 「'아줌마', '아가씨', '언니'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외국어로
서의 한국어교육에의 적용」,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한재영(2001), “중급 한국어 회화 교재의 현황과 보완 방안”,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2>, 태학사.
- 현윤희(2001), “과제 수행 중심의 말하기 지도 방안 -말이 트이는 한국
어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현윤희(2005), “말하기 · 듣기 교육의 연구사와 변천사”, <한국어교육론3>,
한국문화사.
- 張光軍(2007), “對中國學生韓語學習中听力難現象的分析”, <解放軍外國語學
院學報> 30-5, 洛陽解放軍外國語學院.



HANSUNG
UNIVERSITY

부록 1

일상적 문제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일상적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요구조사입니다. 본 설문지는 학술연구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자료의 익명성은 보장될 것입니다. 귀하가 느끼고 생각하시는 대로 솔직하고 정확한 응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성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석사4학기 서민려

※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

연령____, 성별____, 학교____, 급수____.

1.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를 얼마동안 공부하셨습니까?

- ① 공부했다. _____년_____개월 정도. ② 공부하지 않았다.

2.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를 어떤 기관에서 공부하셨습니까?

- | | |
|---------------|----------|
| ① 혼자서 | ② 한국친구에게 |
| ③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 ④ 학부 전공 |
| ⑤ 사설 학원 | ⑥ 대학 어학원 |
| ⑦ 기타 | |

3. 한국에 왜 오셨습니까?

- | | |
|-------------|---------------|
| ① 취업 | ② 한국문화 이해 |
| ③ 학업성취 및 진학 | ④ 한국인과 의사소통 및 |

여행

⑤ 기타

4. 한국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 어려웠던 부분을 순서대로 쓰세요.

() > () > () > ()

① 듣기

② 읽기

③ 말하기

④ 쓰기

5. 중국에서 공부했던 한국어가 실제 한국에서 생활할 때 도움이 되셨습니까?

① 도움이 많이 되었다.

② 도움이 조금 되었다.

③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았다.

④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다.

다.

6. 만약 도움이 안 되었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책에서 문어체를 많이 배우기 때문이다.

② 교과서에 제시된 일상 회화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이다.

③ 기타. _____ (다른 이유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쓰세요.)

※ 어떤 상황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는가에 대한 질문.

7. 길을 물을 때.

(1) 버스 또는 버스정류장에서 한국어로 길을 물어볼 때,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꼈는지 골라 보세요.

① (버스정류장에서) 어느 방향에서 버스를 타야 하는지 물어볼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른다.

② (버스정류장에서) 몇 번 버스를 타야 하는지 물어볼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른다.

③ (버스에서) 어느 정류장에서 내려야 할지 물어볼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른다.

④ (버스에서) 목적지까지 몇 정거장 남았는지 물어볼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른다.

⑤ (버스에서)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쳤을 때, 다른 사람에게 해결 방법을 한국어로 물어보는 것이 어렵다.

⑥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2) 지하철 안에서 또는 지하철역에서 한국어로 길을 물어볼 때,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꼈는지 골라 보세요.

① (지하철역에서) 어느 방향의 열차를 타야 되냐고 물어볼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른다.

② (지하철역에서) 몇 번 출구로 나가야 되냐고 물어볼 때,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③ (지하철 안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열차라도 각 열차의 종착역은 다를 수 있는데, 이 열차의 종착역은 어딘지 또 이 열차를 타면 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른다.

④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내려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른다. (지하철 파업 등과 같은 경우)

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3) 길이나 방향을 잃어버려서 다른 사람에게 길을 물어볼 때,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꼈는지 골라 보세요.

① 길을 잃어버린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② 한국 사람들이 길을 설명해줄 때 사용하는 “곧장, 곧바로, 쪽”등의 어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 ③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 ④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

8. 음식을 주문할 때

(1) 식당에서 요리를 주문할 때, 어떤 상황에서 한국어로 말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는지 골라 보세요.

- ① 요리 재료가 무엇인지 물어볼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 ② 요리의 양(몇 인분인지)을 물어볼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 ③ 요리에 대해 다른 요구가 있어서(고추장을 조금 덜 넣어주세요 등) 물어볼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 ④ 반찬을 리필해달라고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 ⑤ 식당 직원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를지 잘 모른다. ('아줌마'라고 부르면 된다고 배웠는데 왜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불렀을 때, 직원이 불쾌해 하는지 모른다.)
- ⑥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2) 전화로 음식을 주문할 때,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꼈는지 골라 보세요.

- ① 내가 있는 정확한 위치를 설명할 수 없다.
- ② 상대방이 내가 배우지 않은 말을 사용할 때, 당황해서 대답할 수 없다.
- ③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9. 물건을 살 때

(1) 옷가게에서 옷을 살 때,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꼈는지 골라 보세요.

- ① 직원에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나 색깔, 옷감 등을 얘기할 때,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 ② 직원에게 다른 사이즈의 옷을 달라고 할 때,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 ③ 직원이 나에게 추천해주는 옷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할 지 모르겠다.
- ④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2) 화장품을 구매할 때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꼈는지 골라보세요.

- ① 내가 원하는 화장품의 명칭을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모른다.
- ② 내가 어떤 기능의 화장품을 원하는 지 직원에게 설명할 수 없다.
- ③ 친척이나 친구에게 줄 선물을 고를 때, 괜찮은 제품을 추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 ④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 ⑤ 화장품을 사본 적이 없다.

(3) 전자제품을 살 때,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꼈는지 골라 보세요.

- ① 전자제품의 성능에 대해 물어보고 싶지만, 전문용어(화소나 메모리카드 등)를 모른다.
- ② 전자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얼마 동안인지, 그리고 제품이 고장 났을 때 어디로 A/S 받으러 가야하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하는지 모른다.
- ③ 제품의 가격을 싸게 깎아 달라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하는지 모른다.
- ④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 ⑤ 전자제품을 사본 적이 없다.

(4) 핸드폰을 살 때,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꼈는지 골라 보세요.

- ① 핸드폰의 성능에 대해 물어보고 싶지만, 영상통화나 DMB방송, 화소 등 단어를 몰라서 물어볼 수 없다.
- ② 일시정지나 요금제 변경 등의 서비스를 받고 싶을 때 직원에게 설명할 수 없다.

- ③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 ④ 핸드폰을 사본 적이 없다.

(5) 물건을 교환하거나 환불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있습니다. [(2)번으로 가세요.] ② 아니오, 없습니다. [11번으로 가세요.]

(6) 산 물건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아서 교환하고 싶을 때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꼈는지 골라 보세요.

- ① 물건은 커(작다)서 교환하고 싶을 때 어떻게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 ② 이미 산 물건에 대해 마음이 변해서 다른 것으로 교환하고 싶지만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다.
- ③ 내가 산 물건이 문제가 있어서 교환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④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7) 산 물건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아서 환불하고 싶을 때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꼈는지 골라 보세요.

- ① 이미 산 물건에 대해 마음이 변해서 환불하고 싶지만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다.
- ② 내가 산 음식의 유통기간이 지나서 환불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다.
- ③ 내가 산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환불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 ④ 내가 환불하고 싶은 요구를 거절을 당할 때, 어떻게 말하면 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 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10. 방을 구할 때

(1) 부동산에 가서 방을 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있습니다. [(2)번으로 가세요.] ② 아니요, 없습니다. [12번으로 가세요.]

(2) 부동산에 가서 방을 구할 때,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꼈는지 골라 보세요.

① 내가 원하는 방에 대해 필요한 조건들(원룸인지 투룸인지, 가격과 보증금은 얼마이고, 가구가 있는지 등)을 직원에게 설명할 때,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② 집주인에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싸게 해달라고 할 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다.

③ 부동산의 수수료는 얼마인지 물어보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해야하는지 모른다.

④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3) 집주인과 계약할 때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꼈는지 골라 보세요.

① 집주인에게 월세나 전기세, 수도세를 언제 또는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해야하는지 모른다.

② 계약기간 안에 갑자기 이사 가야 할 때 방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집주인에게 상의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해야하는지 모른다.

③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4) 인터넷을 설치하거나 해제시킬 때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꼈는지 골라 보세요.

① 회사에 전화해서 요금제나 할인 여부를 알아보고 싶을 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

② 회사에 전화해서 인터넷 연결이 왜 안 되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해야하는지 모른다.

③ 이사 갈 때 인터넷을 해제하거나 주소를 옮기고 싶을 때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하는지 모른다.

④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⑤ 인터넷을 설치해본 적이 없다.

(5) 집에서 하수도나 보일러, 그리고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고장 났을 때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꼈는지 골라 보세요.

① 집주인에게 보일러가 고장 나서 수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해야하는지 모른다.

② 하수도가 막혔을 때 집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하는지 모른다.

③ 가전제품이 고장 났을 때 A/S센터에 전화해서 한국어로 설명하기 어렵다.

④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⑤ 이런 경험이 없다.

11. 아르바이트를 할 때

(1) 아르바이트 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있습니다. [(2)번으로 가세요.]
번으로 가세요.]

② 아니오, 없습니다. [13

(2)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해 보셨습니까?

① 편의점

② 호프집

③ 고기집(삼겹살집)

④ PC 방

⑤ 일반 음식점

⑥ 기타

(3) 사장님과 대화를 할 때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꼈는지 골라 보세요.

① 면접을 볼 때, 아직 배우지 않은 단어가 갑자기 나오면 어떻게 대답해

야하는지 모른다.

- ② 사장님과 아르바이트 시간을 상의할 때 어떻게 말해야하는지 모른다.
- ③ 월급에 대해서 사장님과 상의할 때 어떻게 말해야하는지 모른다.
- ④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알바를 그만 두고 싶을 때 사장님에게 어떻게 설명해야하는지 모른다.
- 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4) 손님과 대화할 때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꼈는지 골라 보세요.

- ① 손님의 주문을 받을 때, 어떻게 말해야하는지 어렵다.
- ② 발음 때문에 손님이 내 말을 못 알아들 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어렵다.
- ③ 손님이 어떤 요리나 장(소스)에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물어볼 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모른다.
- ④ 손님이 리필을 원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받으려고 나에게 물어볼 때 못 알아들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12. 머리를 할 때

(1) 머리를 파마할 때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꼈는지 골라 보세요.

- ① 직원에게 어떤 스타일의 파마를 하고 싶은지 말할 때 파마에 대한 단어를 몰라서 어려움을 느꼈다.
- ② 어떤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드라이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모른다.
- ③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 ④ 파마를 해본 적이 없다.

(2) 머리를 자를 때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꼈는지 골라 보세요.

- ① 머리를 다듬고 싶을 때 설명하기 어렵다.
- ②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싶을 때 직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모른다.

다.

- ③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 ④ 머리를 잘라 본 적이 없다.

※ 수업 방식에 대한 질문.

13. 한국어 회화 수업을 할 때 어떤 유형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짝 활동
- ② 소그룹 활동
- ③ 대그룹 활동
- ④ 혼자서

14. 다음의 부교재 중에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 ① 드라마나 영화, 광고
- ② 그림이나 사진
- ③ 교수님께서 직접 만드는 자료
- ④ CD나 테이프

15. 회화 수업에서 어떤 학습 활동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역할극
- ② 노래
- ③ 어떤 주제에 대해 토론
- ④ 언어 게임
- ⑤ 대화 암기

※ 한국어 회화 학습 방법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자세히 써 주십시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2

关于日常生活中问题场景的问卷调查

您好！

首先感谢您在百忙之中抽出宝贵的时间。

此问卷填写采用不记名方式，所有资料仅供本人学习研究之用。不涉及任何商业活动，绝不对外公开，绝对保密。希望您按照您的实际情况详实地进行作答，您的每一项回答都将对此研究有重大的作用与帮助。

在此衷心感谢您的协助与支持。

汉城大学校 韩国语文学部 韩国语教育专业
硕士第4期 徐旻骊

※ 关于个人情况的提问：

年龄____，性别____，学校____，级别____。

1. 在来韩国留学之前，您学过多久的韩国语？

- ① 学过。学过____年____月。 ② 没学过。

2. 如果您来韩国之前学过韩国语的话，您是通过什么样的方式来学习韩国语的？

- ① 自学。 ② 跟韩国朋友学习。
③ 通过看电视剧和电影来学习。 ④ 大学时的专业是韩国语。
⑤ 在私立的语学院里学习。 ⑥ 在大学机构里面的语学院里学习。
⑦ 其他。

3. 您来到韩国的最终目的是什么？

- ① 为了以后能更好的就业。 ② 为了了解韩国的文化及风俗。
③ 为了继续学习深造。 ④ 为了能与韩国人进行交流。
⑤ 其他。

4.当您在日常生活中使用韩国语时，您觉得以下哪个部分最难？请按顺序写下来。

() > () > () > ()

- ① 听力 ② 阅读
③ 口语 ④ 写作

5.如果您在中国学习过韩国语，那么您当时学习的韩国语，对您来到韩国后的生活有所帮助吗？

- ① 对我的生活非常有帮助。 ② 对我的生活有一定的帮助。
③ 对我的生活没有起到多少帮助。 ④ 对我的生活完全没有帮助。

6.（接第5题）如果对您的生活没有起到帮助作用，那么您认为最大的原因是什么？

- ① 书本中所学的基本上是书面语。
② 教材上所设置的场景会话太单一，太局限，日常生活中用不上。
③ 其他。_____（如果有其他原因的话，请简单的写一下。）

※ 关于在某些情况下，使用韩国语时，所遇到的困难情况的提问：

7. 问路时。

(1) 请您选出在公交车站或公交车上，您所遇到的困难情况。

- ①（公交车站上）当我向别人询问应该从哪个方向坐车的时候，不知道应该怎样表达。
②（公交车站上）当我向别人询问，坐哪路车能到达目的地时，不知道应该怎样表达。

③（公交车上）当我向别人询问应该从那一站下车时，不知道怎样使用韩国语来表达。

④（公交车上）当我向别人询问还有多少站到达目的地的时候，不知道怎样使用韩国语来表达。

⑤（公交车上）当我感觉已经坐过了车站的时候，不知道应该怎样来向别人寻求解决方法。

⑥ 以上情况，均没有感到困难。

(2) 请您选出在地铁站或地铁里，您所遇到的困难情况。

①（地铁站里）当我向别人询问应该从哪个方向坐地铁的时候，不知道应该怎样表达。

②（地铁站里）当我向别人询问，应该从几号地铁出口出去的时候，不知道应该怎样表达。

③（地铁里）同一条线上的地铁，终点站有可能不同。当我想知道这趟车的终点站是哪，能不能到达我的目的地时，不知道应该怎样表达。

④（地铁里）当地铁进站后，所有乘客全部下车时，我不知道出现了什么状况想向别人询问，但是不知道应该怎样表达。

⑤ 以上情况，均没有感到困难。

(3) 请选出当您在街上迷路时，所遇到的困难情况。

① 当我迷路时，我不知道应该怎样使用韩国语问路。

② 我不能准确的理解别人使用“곧장 (곧바로, 卒)”等词汇。

③ 以上情况，均没有感到困难。

④ 没有迷路的经历。

8.点菜时。

(1) 请选出当您在饭店里点菜时，所遇到的困难情况。

① 当我向服务员询问料理里有什么原料时，不知道应该怎样表达。

② 当我想知道大份，中份或者小份的料理能够几个人食用时，不知道应该怎

样表达。

- ③ 当我想让服务员在我的料理里少放些辣椒，或者对料理有其他的要求时，不知道应该怎样表达。
- ④ 当我需要服务员给我添加小菜时，不知道应该怎样表达。
- ⑤ 不知道为什么当我按照课本上所教的，对着服务员喊“아줌마”的时候，服务员态度会非常不好。
- ⑥ 以上情况，均没有感到困难。

(2) 请选出当您在打电话点菜的时候，所遇到的困难情况。

- ① 在电话里不能正确的描述我所处的具体位置。
- ② 对方在电话里突然说出我平时没有学习过的内容，我很堂皇失措，不知道怎样回答。
- ③ 以上情况，均没有感到困难。

9. 买东西时。

(1) 请选出当您在商店里买衣服时，所遇到的困难情况。

- ① 不能很准确的向售货员描述我喜欢的衣服的样式，料质及颜色的时候。
- ② 当售货员给我推荐的衣服大了（小了，长了，短了，肥了或者瘦了），我想要更换的时候，不知道应该怎样表达。
- ③ 当我对售货员给我推荐的衣物不是非常满意的时候，我想解释原因但是却不知道该怎样表达。
- ④ 以上情况，均没有感到困难。

(2) 请选出当您在买化妆品时，所遇到的困难情况。

- ① 当我想向售货员表达我所需要的物品名称，但我又不知道它们用韩国语应该怎么说。
- ② 当我想向售货员表达我所需要的，具有某种功能的化妆品时，我不知道它们用韩国语应该怎样说。
- ③ 当我给亲戚朋友挑选礼物时，想向售货员询问某种化妆品适合什么样肤质

的人，但却不能准确的表达我的意思。

- ④ 以上情况，均没有感到困难。
- ⑤ 我没有买过化妆品的经历。

(3) 请选出当您在电子城里购买电子产品，所遇到的困难情况。

- ① 当我想向售货员询问我所需要购买的电子产品的性能，但我又不知道类似于电脑内存，电子字典手写功能或者是相机的像素等专业词汇。
- ② 当我想向售货员询问产品的保修时间，或者如果产品发生故障，应该去哪里进行维修的时候，不知道应该怎样表达。
- ③ 当我觉得商家报的价格过高，想询问能否打折，但是不知道应该怎样表达。
- ④ 以上情况，均没有感到困难。
- ⑤ 我没有买过电子产品的经历。

(4) 请选出当您在购买手机时，所遇到的困难情况。

- ① 当我想向店员了解手机功能时，却不知道一些专业词汇。例如，有没有mp3,拍照的像素是多少，能不能视频通话，能不能看电视等等。
- ② 当我需要办理手机业务的时候，不知道应该怎样表述。例如，我想暂时停机，或者想换某种话费套餐等等。
- ③ 以上情况，均没有感到困难。
- ④ 我没有买手机的经历。

10. 退换物品时。

(1) 您有退换物品的经历吗？

- ① 有。[请继续做(2)，(3)题。]
- ② 没有。[请做第11题]

(2) 请选出当您对所购买的物品不满意，需要调换时，所遇到的困难情况。

- ① 当我购买的衣物不合身，需要调换，但是不知道应该怎样表达。
- ② 当我不喜欢已经购买了的物品，想调换其他样式的时候，不知道应该怎

样表达。

③ 当我购买的物品有质量问题，需要调换其他物品时，不知道应该怎样表达。

④ 以上情况，均没有感到困难。

(3) 请选出当您对所购买的物品不满意，需要退货时，所遇到的困难情况。

① 当我不喜欢已经购买了的物品，想退货但是不知道应该怎样表达。

② 当我购买的食物超出保质期，要求退货但是不知道应该怎样表达。

③ 当我购买的物品有质量问题，需要退货但是不知道应该怎样表达。

④ 当我需要退货的要求被拒绝时，我想维护自己合理权益，但是不知道应该怎样表达。

⑤ 以上的情况，均没有感到困难。

11. 找房子的时候。

(1) 您有去不动产找房子的经历吗？

① 有。[请继续做(2)，(3)，(4)，(5)题。] ② 没有。[请做第(4)题]

(2) 请选出当您去不动产找房子，所遇到的困难情况。

① 当我跟不动产的员工说明我所需要的房子的各方面条件时，不知道应该怎样表达。例如，需要有几间房间，房子的价格，保证金的多少，房子的楼层，房子里有没有家具，等等。

② 保证金或者月租过高的情况下，我想询问能不能降低点的时候，不知道应该怎样表达。

③ 想询问不动产收取的中介费价格，但是不知道应该怎样表达。

④ 以上情况，均没有感到困难。

(3) 请选出当您跟房东签约时，所遇到的困难情况。

① 当我想向房东询问房租，水电费，天然气费等费用如何支付时，不知道应该怎样表达。

② 当我想向房东询问,如果签约期内临时需要搬出,该如何处理的时候,不知道应该怎样表达。

③ 以上情况,均没有感到困难。

(4) 请选出当您在安装或拆除网线时,所遇到的困难情况。

① 当打电话给电信公司,询问价目表或者是否有优惠活动时,不知道应该怎样表达。

② 当网络信号不好,需要打电话给电信公司咨询的时候,我不知道应该怎样表达。

③ 当我因为搬家,需要解约或者迁移网线的时候,不知道应该怎样打电话给电信公司说明情况。

④ 以上情况,均没有感到困难。

⑤ 我没有过安装或拆除网线的经历。

(5) 请选出当您家里的下水道,壁挂炉,电器等出现故障需要维修时,所遇到的困难情况。

① 当我向房东说明家里的壁挂炉有问题,希望找人前来维修时,不知道应该怎样表达。

② 下水道堵塞,我向房东说明并寻求帮助时,不知道应该怎样表达。

③ 电器出现故障,打电话给维修中心说明情况时,我不知道应该怎样表达。

④ 以上情况,均没有感到困难。

⑤ 我没有这种经历。

12. 打工的时候。

(1) 您有打工的经验吗?

① 有。[请继续做(2), (3), (4)题。]

② 没有。[请做第13题]

(2) 您在哪里打过工?

① 便利店

② 酒吧

③ 烤肉店

④ 网吧

⑤ 普通饭店

⑥ 其他

(3) 请选出在您与老板对话时，所遇到的困难情况。

① 应聘面试时，老板突然说出我从没学过的单词，我很堂皇失措，不知道怎样回答。

② 当我想跟老板商量打工时间的时候，不知道应该怎样表达。

③ 当我想跟老板商量工资多少的时候，不知道应该怎样表达。

④ 当我临时有事，想停止打工的时候，不知道应该怎样跟老板解释。

⑤ 以上情况，均没有感到困难。

(4) 请选出在您与客人对话时，所遇到的困难情况。

① 帮客人点菜时，不知道应该怎样表达。

② 由于发音问题，客人听不懂时，不知道应该怎样跟客人解释。

③ 当客人需要我解释两种料理或者蘸酱的区别时，不知道应该怎样说明。

④ 当客人需要添加小菜，或是需要服务时，由于没有听懂，所以不知道应该怎样回答。

⑤ 以上情况，均没有感到困难。

13. 打理头发时。

(1) 请选出当您烫发时，所感觉到的困难情况。

① 我不知道应该怎样向发型师说明我喜欢的发型。例如，大卷，小卷，直发等等。

② 当我要出席正式场合，需要做一次性的发型时，不知道应该怎样说明。

③ 以上情况，均没有感到困难。

④ 我没有烫发的经历。

(2) 请选出当您剪发，所遇到的困难情况。

- ①当我想在原有发型基础上，将长度剪短一点的时候,不知道应该怎样说明。
- ② 当我想完全改变发型的时候，不知道应该怎样跟发型师表达。
- ③ 以上情况，均没有感到困难。
- ④ 我没有剪发的经历。

14. 寄包裹时。

(1) 您有寄包裹的经验吗？

- ① 有。[请继续做(2)，(3)题。]
- ② 没有。[请做下一部分的题目]。

(2) 请选出当您在寄包裹时，所感觉到的困难情况。

- ① 在询问哪些物品可以邮寄的时，不知道应该怎样表达。
- ②向工作人员询问怎样填写收件人，寄件人的住址时，不知道应该怎样表达。
- ③ 在询问寄出的物品需要多久能收到的时候，不知道应该怎样表达。
- ④寄出的物品，对方没收到的情况下，我不知道应该怎样去询问物品的下落。
- ⑤ 在电话里描述大件物品大小，及询问何时来接收物品时，不知道应该怎样表达。
- ⑥ 以上情况，均没有感到困难。

※ 关于课堂教学方式的提问：

15. 韩国语会话课上，您觉得采取哪种方式比较好？

- ① 两个人一起。
- ② 以小组形式（3-5名）
- ③ 以小组形式（5名以上）
- ④ 以学生个人为主

16. 以下的辅助教材中，您觉得哪项最合适？

- ① 电影，电视剧或广告
- ② 图画或照片
- ③ 老师提供的相关资料
- ④ CD或磁带

17. 您觉得哪种课程活动效果最好？

① 话剧 (Role Play)

② 歌曲

③ 针对某个主题进行讨论

④ 游戏方式

⑤ 背诵对话

如果您有其他有效的会话学习方法，或对于会话课有其他建议的话，请写下来。



- 非常感谢您的协助 -

HANSUNG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n a Method for Teaching the Korean-Speaking for Resolving a Daily Problem Situation

-Centered on Chinese Learners-

XU MIN LI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In this paper, I attempted to suggest conversation content and a teaching method necessary for Chinese people which learn the Korean language for the first time in the daily speaking situation. In order to do so, I conducted a study as follows:

First, in chapter II, I reviewed problem situations. In the first interviews, there were 11 situations where interviewees were having a difficulty in a daily speaking environment. I extracted 6 out of the 11 situations, under where learners faced the most and had the most variables. Then, via a survey, I checked out the detailed situation which most of the interviewees were having a difficult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ext in paragraph 2, I found that 5 problem situations excluding “Doing Part-time” were incorporated in the Korean textbooks which were being used a lot in China. In addition, I found that the typical conversations which are dealt with in the existing textbooks

lack in reality and concreteness.

In chapter III, I analyzed on the factors of each problem situation and a strategy for resolving the problems. In paragraph 1, I divided the situations into 6 including “Asking a Direction,” “Ordering Food,” “Buying Products,” “Looking for a Room” and “Doing Part-time” and analyzed on factors, such as vocabulary, language use, information and culture, etc, under each situation. Among them, in the 4 factors: Asking a Direction, Ordering Food, Buying Products and Doing Part-time, there occurred a learner’s communication problem. In the meanwhile, in the case of “Looking for a Room” and “Hairstyling,” there was a communication problem in 3 factors excluding a cultural factor. Paragraph 2 suggests a simple solution strategy to the factors which a communication barrier occurred in each situation.

Lastly, in chapter IV, I suggested a detailed teaching method by type depending on a strategy. Paragraph 1 dealt with the teaching content by type by comparing the teaching content with 4 factors, such as vocabulary, language use, information and culture, which a learner results in a communication barrier. Paragraph 2 is about a teaching activity method based a conversation sentence suggested in paragraph 1.

中文概要

中韩建交以来,随着两国在经济、政治、文化等领域的频繁交流,中国国内学习韩语的学生及想来韩国学习的学生也日益增加。不少学生在来韩国之前学习过韩语,尽管如此,仍然有很多学生来韩国后因语言问题,在日常生活与人交往中遇到了很大的困难。

因此,旨在预防这种现象的发生,本文针对正在国内学习韩语的学生,提出适当会话教学内容及方案。研究者首先在文中找出中国学生在学习韩语的初期阶段中遇到困难的情景;其次分析学生们为什么虽在国内学习过韩语,却在来到韩国后的某些日常生活情景当中,还是会发生沟通困难的原因;最后提出了教学内容及方案。

第二章中,针对日常生活中的问题情景进行了调查。首先,第1节中,通过采访调查推定出了日常生活中的11种问题情景。其次,研究者根据学生时常接触到的情景及具有很多变数的情景这两个标准,从以上11种情景中进一步筛选出6种问题情景。再次,通过对学习韩语的学生们进行的问卷调查,确定了在这6种情景中大部分学生感觉到困难的更加细部的场面。第2节中,通过对教材的分析确定除了“打工”以外的其他5种问题情景,在中国国内广泛使用的韩语教材中都有收录。此外,通过对教材的分析还得出一个结果:中国国内现有教材中所收录的带有典型性质的对话较缺乏现实性和具体性。

第三章中,首先针对各个问题情景进行了原因分析,其次又分别对各个问题情景提出了解决方案。第1节中从词汇、语用、资讯、文化等4个要素方面,分析“问路、点菜、购物、租房、打工”等6个情景中产生沟通障碍的原因。其中“问路、点菜、购物、打工”等4个情景在上述4个方面中都产生了与人沟通方面的障碍;而“租房”、“美发”情景在除去文化要素以外的其他3个要素中会产生与人沟通的障碍。第2节中分别根据各个情景中发生沟通障碍的原因概括地提出了解决方案。

第四章中,按照解决方案,分别提出了针对各个情景的教学方法。首先在第1节中,从引起学生沟通上障碍的“词汇、语用、资讯、文化”等4个要素方

面，对6个场景的教学内容进行了组织设计。其次在第2节中，以既定教学内容为基础，展示了课堂活动模式。

综上，本文是通过分析在韩国的中国学生日常生活中所感到困难的场景，及发生沟通问题的原因，给正在国内学习韩语的学生，提出合理的会话教学内容及方案的文章。虽然本文存在很多的不足之处，还是希望对从事韩语教育的教师们能够起到一定的启发和帮助作用。

